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71호
2025년 04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구순 맞아 자녀들이 14만불 기부한 김창수·안숙선 동문 부부



김창수 동문 부부는 아들 둘에 딸 넷으로 슬하에 6남매를 뒀다. 자녀들은 이날 부모님 이름으로 축의금까지 합해 거의 15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기부했다.

커네티컷에 사는 김창수(의대 54) 안숙선(간호대) 동문 부부가 지난 3월1일 커네티컷 한인회관에서 가족과 친지, 이웃 그리고 서울대 후배들이 모인 가운데 구순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다.

김창수 동문 부부는 올해로 결혼 64년을 맞은데다 두 동문 모두 생일이 3월에 있어 함께 구순연을 치렀다.

특히 이날 구순연을 맞아 큰딸 비비안은 아버지가 애정을 갖고 봉사해온 커네티컷 한인회에 5만 달러를 기부하고 둘째딸 리사 부부는 아버지가 다니는 커네티컷 한인교회에 9만 달러 건축헌금을 냈다.

이날 하객들이 낸 축의금 8000달러도 커네티컷 한인회에 모두 기부했다. **<관계기사=12면>**

모교 총장·총동창회장도 미네소타 평의원 회의 출동

오는 6월 20~22일 미네소타 세인트폴에서 열리는 제34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종섭 총동창회장,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2008년 미주재단 설립 이래 미주 동문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그동안 기부한

돈은 2000만 달러에 육박한다. 유홍림 총장은 지난해 6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제 32차 평의원 회의 참석 당시 인사말에서 “미주 동문들은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자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모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에 진심으

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한 바 있다. 미주 동창회는 제17대 노명호 회장 취임 이후 모교는 물론 총동창회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 등 공동 사업을 벌이는 등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모교는 매해 10월 열리는 흠커밍데

이 때는 미주 동문들만을 위한 총장 오찬과 총동창회장 만찬 등을 준비해 ‘귀한 손님’ 대접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모교와의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 강화는 미주동창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됐다.

노명호 16대 회장 ‘관악대상’ 수상 영예

제16대 미주동창회장을 지낸 노명호(공대 61·사진) 동문이 제27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관악대상은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빛낸 동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노명호 동문과 함께 이윤경 CM중무병원 행정원장, 이경수 코스맥스그룹 회장이 공동 선정됐다.

노명호 동문의 이번 수상은 미주 동문으로는 2023년 남가주 하기환(공대 63)



동문에 이은 두번째 수상 영예다. 리앤 로(Lee & Ro) 엔지니어링사를 설립해 운영한 노명호 동문은 2018년 서울대 토목동창회에서 주는 ‘해외토목인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 공대 건설환경공학부 장학기금 10만 달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0만 달러를 모교에 쾌척했다.

박상근(법대 75) 동문, 19대 미주 동창회장 출마

워싱턴 D.C 박상근(법대 75·사진) 동문이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19대(차차기) 회장에 출마했다.

워싱턴 D.C 지부의 오인환 제12대 미주동창회장과 남욱현 현 워싱턴 D.C 지부 회장, 정세근 전 워싱턴 D.C 지부 회장이 박상근 동문을 19대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노명호 인선위원장은 인선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많은 젊은 동문들이 참여해 의미있는 동창회 활동을 하고 있는 워싱턴 D.C 지부에서 19대 회장 후보가 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지부 회장을 지낸 박 동문



은 젊은 동문들을 임원으로 적극 기용해 다양한 취미 동호회를 만들어 동창회를 활성화하면서 회원들을 크게 늘렸다.

현재 문앤박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6월 20일 미네소타 세인트폴에서 열리는 평의원 회의에서 공식 선출되면 2027년 7월1일부터 임기 2년의 19대 회장을 맡게 된다. **<관계기사=7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동문들과의 즐거운 2박3일 “가자! 세인트폴로~”

짧고 기나긴 겨울을 끝낸 미국 중북부 미네소타의 6월은 매우 아름답다.

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하늘의 빛을 띤 물’이라는 뜻을 지닌 미네소타에는 크고 작은 호수가 무려 1만개가 넘는데 빙하가 녹으며 만들어낸 질푸른 호수는 녹색과 연초록의 향연을 펼치는 야트막한 산들과 어우러져 대자연의 절경을 뽐낸다. 따뜻한 햇살에 맑고 깨끗한 공기를 즐기며 눈만 돌리면 보이는 강과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에 젖다 보면 어느새 마음엔 삶의 여유와 평화가 찾아든다.

‘1만개 호수의 땅’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오는 6월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동안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제 34차 평의원 회의가 열린다.

세인트 폴 호텔은

세인트 폴은 미시시피강을 끼고 미니애폴리스와 트윈시티를 이르는 미네소타주의 주도로 빅토리아 시대의 고풍스런 분위기가 살아 있는 유서 깊은 도시다. 평의원 회의가 열리는 세인트 폴 호텔만해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4개 등급의 세인트 폴 대표 럭셔리 호텔로 미시시피 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미네소타는 인심이 후하기로도 유명한 곳이다. 온라인 금융업체 웰렛허브가 자선활동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네소타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인심이 좋은 주 2위에 올랐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과 독일계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한 곳으로 사람들이 친절하고 상냥해 ‘미네소타 나이스(Minesota Nice)’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

한국과 인연 깊은 미네소타

미네소타주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우선 한국전 참전용사가 유독 많다. 미네소타 출신 한국전 베테런은 9만5천여 명으로 단일 주로는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14만5천명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인구 600만명이 안되는 주로서는 놀

라운 숫자다. 한국 어린이 입양 인구 비율은 세계 1위다. 전후 미국에 입양된 한국 아동이 12만명 정도라는데 미네소타에 2만명 가까이 몰려 있다. 미네소타에는 한국어 마을도 있다. 한류하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인 1999년 콘코디아 대학이 북부 소도시 베미지에 다중언어 프로그램의 하나로 세웠는데 미국 50개 주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2주에서 한달 정도 이곳에 머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돌아간다.

라운 숫자다.

한국 어린이 입양 인구 비율은 세계 1위다. 전후 미국에 입양된 한국 아동이 12만명 정도라는데 미네소타에 2만명 가까이 몰려 있다. 미네소타에는 한국어 마을도 있다. 한류하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인 1999년 콘코디아 대학이 북부 소도시 베미지에 다중언어 프로그램의 하나로 세웠는데 미국 50개 주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2주에서 한달 정도 이곳에 머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돌아간다.

미네소타대와 서울대의 인연

미네소타와 서울대와의 인연을 더욱 깊다. 미네소타 대학은 1955년부터 1962년까지 7년 동안 ‘미네소타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서울대 교수진 양성은 물론 교육 및 연구, 진료 시설을 복구하고 장비를 지원하는데 앞장 섰다. 물론 비용은 미국 정부가 전액 부담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의대, 공대, 농대 등 3개 단과대학의 교수, 조교 등 226명이 짝게는 3개월, 길게는 4년간 미네소타대학에 머물며 밤낮없이 학업에 몰두했고 이들이 배워온 수준 높은 학문과 기술은 1960~70년대 한국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됐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황효숙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이 공들여 준비한 프로그램 중 하나도 바로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이다. 프로젝트 시행 70주년을 기념해 미네소타 대학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미네소타 동문들이 황효숙 차기 회장을 중심으로 팔견어부치고 준비한 제34차 평의원 회의, 이제 미주 동문들이 함께 즐길 차례다. “가자 세인트 폴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호텔 예약 방법

1. Visit the website at www.saintpaulhotel.com & click RESERVATIONS
2. Enter Check-in dates June 20, Check-out dates June 21, and No. of Guests.
3. Drop down for Code Type and choose “Group/Block”
4. Enter the code number 3596904 in CODE.(5/23까지 유효)
5. Click CHECK AVAILABILITY.
6. Choose a room type “Deluxe Rooms” and fill out the form and pay \$164.00 + tax.

공항 교통편

미니애폴리스 - 세인트 폴 공항은 델타의 허브 공항인 만큼 미네소타를 방문할 땐 보통 델타 항공을 추천한다. 공항에서 세인트 폴 호텔까지는 우버나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호텔은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다. 세인트 폴 호텔은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다. 호텔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공항에서 각자 우버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문의: 황효숙 차기회장

(651) 308-0796/
sook@nano-dyne.com
박현아 차기사무총장
(952) 679-4267
백옥자 총무국장
(818) 395-1967

평의원 회의 일정

6월 20일(금)

등록 및 리셉션: 오후 1시 ~ 2시
(평의원 회비 200불, 배우자 무료
일반 동문 참가자 회비 150불)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
오후 2시30분 ~ 5시30분

시상식과 작은 음악회
오후 6시 ~ 7시

환영 만찬: 오후 7시 ~ 8시30분

각 지부 동창회장 모임
오후 8시30분 ~ 9시30분

6월 21일(토)

아침 식사: 오전 7시 ~ 8시30분

평의원 회의: 오전 9시 ~ 12시
(배우자와 일반 동문 위한 투어
준비)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 4시30분
(19대 차차기 회장 선출)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
축하 행사와 작은 음악회
오후 6시 ~ 7시

디너와 여흥: 오후 7시 ~ 10시

6월 21일(일)

골프(Rush Creek Golf Club)
오전 9시 ~ 10시 도착
골프 fee 135불+택스(카트 25불)

골프 후 디너
황효숙 회장 초청 클럽하우스

‘평의원 회의 손님 맞이’ 미네소타 동문들도 힘 모은다

미네소타 지부 동문들이 오는 6월 20~22일 미네소타 세인트폴에서 열리는 제34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함께 손을 잡았다.

문성인(공대 88) 미네소타 지부 회장은 지난 3월 15일 자신의 집으로 지부 이사들을 초대해 2025년 1차 이사회를 열었다. 점심식사와 간단한 자기 소개를 마친 후 미네소타 지부의 2025년도 활동계획을 논의했는데 가장 큰 주제는 6월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평의원 회의의 지원이었다.

먼저 평의원 회의에 참석할 평의원 후보들의 우선 순위를 정했고 일반동문들의 참석도 격려하며 참석인원에 따라 지부에서 참가비용을 보조할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평의원 회의에서 열릴 예정인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과 관련해 워크숍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강경철(지구환경과학부 04) 동문과 학생 동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봄, 가을 야유회, 골프대회, 볼링대회 등의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으며 한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학술세미나를 다시 개최해 보다 효율적인 선후배간의 대화와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다음 번 행사는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봄 야유회이다.



미네소타 지부 동문들이 지난 3월15일 문성인 지부 회장 집에 모여 2025년 첫 이사회를 열고 미네소타 평의원 회의 지원 등 올해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2025년 첫 이사회 열고 성공적 개최 지원 등 논의 동창회 후원 김권식·황효숙·조성구 동문에 감사패

미네소타 지부는 이사회비와 일부 동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최근 2년간 김권식(공대61), 황효숙(사대65), 조성구(의대59) 동문께서 장학금과 일 반후원금을 지원해 동문회 활동이 한

층 다양해질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지부에서 감사패를 제작해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황효숙 미주 동창회 차기 회장이 제안한 동창회의 지역사회 봉

사와 관련해 MAK(Association for Korean Americans)에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 기념 특별 장학금으로 1500달러를 기부하기로 동의하였다. 이는 Korean heritage를 가지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정신을 계승하며 지역사회에 서울대 동창회의 참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글=문성인(공대 88)

서울대 발전 기틀 마련...미래협력 새로운 장 연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 기념 워크숍

나누어진다고 평가되며, 의학 뿐만 아니라 공학, 농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대학교와 미네소타대학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는 미네소타대학교의 교육원조로 서울대학교가 선진학문 및 기술을 전수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 34차 평의원 회의에서는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2’를 기획하는 특별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란?

1955년부터 1962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된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1955년 9월15일 12명의 젊은 의대교수들이 노스웨스트 항공기를 타고 서울 여의도 비행장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전쟁으로 폐쇄된 한국의 고등교육과 연구 역량을 재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미네소타대학교가 협력한 역사적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미네소타대학교는 미국 국제협력처(ICA, 현 USAID)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의 공학, 농학, 의학, 간호학 분야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을 지원했으며, 수의학과 행정학 분야로도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다.

총 226명의 서울대 교수진이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연수하고, 59명의 미네소타대 교수진이 서울대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교수진 중 68명이 석사 학위를, 15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귀국 후 한국의 학문 발전을 선도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학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두 대학 간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 양교의 우정과 협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역사적 가치는 미래의 공동연구 및 학문 교류

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역사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고민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70주년 기념 워크숍은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더 큰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 기념 워크숍은 제34차 평의원 회의 첫날인 6월 20일 평의원 회의가 열리는 세인트폴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대학교와 미네소타대학교의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산업계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

해 양교 간 학문적 협력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미네소타대에서 연구와 리더십 및 조직력 교육을 경험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미네소타 프로젝트2’를 기획해 이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도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경철(지구환경시스템 공학 2004)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 조직위원장 · 미네소타 대학 지구환경과학과 부교수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 잘 쓰겠습니다”



제17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취임이후 새로 종신이사에 가입한 동문들. 종신이사가 24명, 실버이사가 11명, 골드이사가 12명, 다이아몬드 이사 1명 등 모두 48명이 합류했다.

종신이사 가입 크게 늘어 ... 17대에 48명 합류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에 종신 이사 가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17대에 48명(3월 잠정 집계)에 달해 전체 216명의 종신이사에서도 1/4정도 차지하게 됐다. 이는 종신이사에 합류하는 동문들이 최근래에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상강 회장이 이끄는 17대에 합류한 동문들을 살펴보면, 종신이사가 24명, 실버이사가 11명, 골드이사가 12명, 다이아몬드 이사가 1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는 17대 회장단이 적극적으로 종신이사 합류를 요청한 것이 주요했다.

미주 동창회 백옥자 총무국장은 “최근 종신 이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더니 미 전역에서 종신 이사 가입이 늘고 있다”면서 “조규승 시카고 동문회장을 비롯해 차재철 동문 부부, 진성호 동문 부부가 이사회비를 보내와 종신이사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차재철 동문과 진성호 동문은 부부 모두 동문인 커플로 두 사람이 같은 액수로 가입해서 부부 종신 이사가 됐으며 차재철-남광순 부부의 경우, 단번

**이상강 회장단 대륙 종단-횡단에 큰 호응
조상근 동문은 10만불 다이아몬드 이사로
동창회 관심 커질수록 가입 문의도 많아져**

에 종신이사 실버가 됐다. 워싱턴 지부의 김재훈 동문은 종신이사비를 추가로 보내와 골드 종신이사가 됐다.

백옥자 총무국장은 “지난 여름과 가을에 걸쳐 이상강 회장과 김경숙 총무국장 등 회장단이 미국 대륙을 남북 종단과 동서 횡단을 통해 각 지부를 방문했던 것이 동문들의 호응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규승 시카고 지부장의 경우, 그런 뜻을 직접 밝혀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강 회장과 회장단이 지부를 방문해서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후원 호소가 동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회장단 임기는 2년으로 매년 개최되는 평의원 회의에서 회장단과 지부별 평의원이 직접 만날 수 있다. 하지

만 임기 중간인 지난해와 같이 회장단이 직접 지부를 방문하면, 주요 동문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려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회장단은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동문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서 듣게 되고 지부별 애로 사항을 속 깊게 알게 된다. 이 모임에서 미주동창회의 후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한편 동창회 측은 “동문회비는 상당 부분이 동창회비를 만들고 배포하는데 사용된다”면서 “몇 년째 물가가 상승했지만 종신이사회비나 연회비는 인상하지 않았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동창회 측에 따르면, 동문들이 전달하는 종신이사 회비와 연회비는 동창회 수입의 중요한 축으로 동창회보 제

작과 사무실 임대료 이외에 각 지부 후원금, 각 지부 장학금, 각종 행사에 후원금으로 쓰인다. 다만 종신이사회비의 2/3은 기금으로 넘겨져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연회비는 연간 100달러다. 종신이사비는 3000달러이며, 종신이사 실버는 5000달러, 종신이사 골드는 1만 달러다. 동창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회비를 내면서 동창회보를 받아본다면 동창회의 활동과 동문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동창회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후 동창회를 돕기 위해서 종신이사가 되고 더 돕기 위해서 실버, 골드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동문이 동창회보를 통해 동문들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은 물론, 모교 서울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또한 자녀들도 ‘최고 대학 서울대’를 인정하게 되면서 동문들 스스로도 서울대 졸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회비 관련 문의는 이메일(snuaausa17@gmail.com)로 하면 된다.

장병희 편집위원

미망인이 남편과 작별하며 ... 마지막 병상에서

미주동창회에 배달된 '후원금 선물'

동창회는 동문들의 참여와 따뜻한 성원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 LA에 있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 사무실에 동창회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을 울리는 두 통의 편지가 배달됐다.

“서울대학 미주 동창회장님께!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되는 DR. 전희근은 1960 년도에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일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 떠났습니다.

많은 음악인들과 평소에 사랑을 나누던 형제들이 많이 모여 마지막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천국을 향해 떠나가셨습니다. 2024 년 12 월 15 일 자택에서 사망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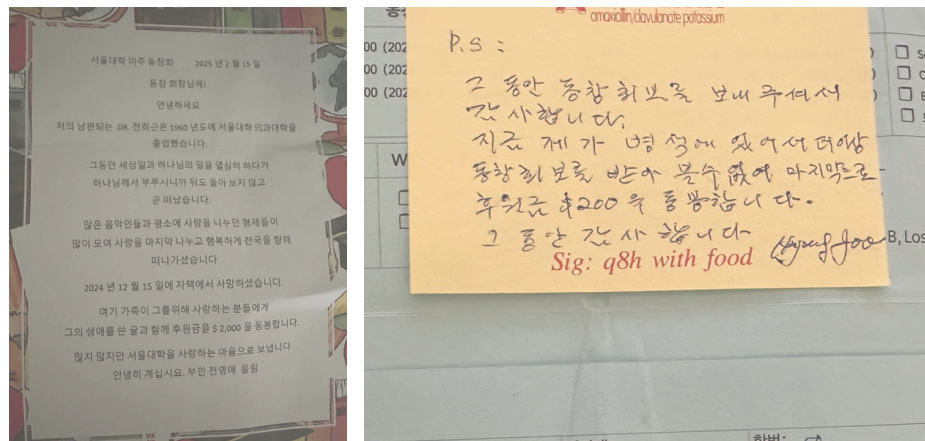
여기 가족이 그를 위해 사랑하는 분들

에게 그의 생애를 쓴 글과 함께 후원금 \$2,000 을 동봉합니다. 많지 않지만 서울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전영애 올림”

남편의 생전 모교 사랑을 잘 알기에 동창회에 대한 후원금으로 남편과의 작별 인사를 한 것이다.

고 전희근 동문은 펜실베이니아 대학 병원과 SJIRA에서 근무했으며 의학 출판물과 기독교 서적 5권 그리고 1권의 요리책을 저술했다. 음악을 사랑해 밴드에서 연주하고, 여러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7장의 음악 CD를 녹음했다. 1968년부터 다니기 시작한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 장로로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봉사하면서 1984년부터는 매해 한번 이상 선교 여행을 했다. 풀러 신학교, ACTS, YWAM에서 교수 생활도 했다.

또 한 통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전희근 동문 부인이 보내는 편지(왼쪽)와 주창준 동문이 200불을 보내며 동봉한 노트.

“그동안 동창회보를 보내주셔서 감사 합니다. 지금 제가 병상에 있어서 더이상 동창회보를 받아볼 수 없어 마지막으로 후원금 \$200을 동봉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에 사는 주창준(의대 50) 동문이 보낸 편지다.

편지를 받은 백옥자 총무국장은 “마지막 병상에서도 동창회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 한참 눈물을 글썽했다”면서 “이상강 미주동창회장도 정성 어린 후원금을 받고 동창회 운영과 발전에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은퇴 후 동창회 봉사하는 재미에 푹~빠졌어요”

종신이사 가입 나용화(생과대 79) 동문

‘물어 물어’ 남가주 동문 골프대회 첫 참가 IBM출신으로 미주동창회 DB 구축 앞장

캘리포니아 남쪽 어바인에 거주하는 나용화(생과대 79) 동문이 최근 종신이사에 올랐다.

나 동문은 지난해 미주동창회 집행부에 합류해 서울대 미주동창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을 이끌었다. 그런데 나 동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식품영양학과 출신이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해 수천명 동문을 전산 조직화했다는 얘기를 가웃똥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전문성을 들여보면 미주동창회에 이런 복음(?)이 있었나 싶다.

나 동문은 1960년생으로 1984년에 미국에 왔다. 학부 졸업하고 1년 후에 도착했다. 1956년생인 부군 커크 황(Kirk Hwang)씨와의 결혼 덕분에 미국에 왔다. 가족과 이민 온 부군은 고교부터 미국에서 공부했고 코넬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당시엔 IBM을 다니고 있었다.

새벽 나 동문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뉴욕주립대 학부 공부를 시작했다. 석사도 엔지니어링 스쿨인 IPI에서 받았다. 그리고 바로 IBM에 취직했다.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은퇴하기 전 마지막 5년 동안은 비즈니스 테크니컬 디벨롭먼트 부서에서 디렉터를 역임하고 지난 2024년 5월1일에 은퇴했다.

“제가 처음 실리콘 벨리에 왔을 때 처음 야후, 구글, 애플도 있었는데 애플이 일을 잘 하지 못 했어요. 비즈니스가 별로 안 좋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약간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뉴욕에 거주하던 부부는 1996년 실리콘벨리로 이주해와서 야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시작과 성장을 목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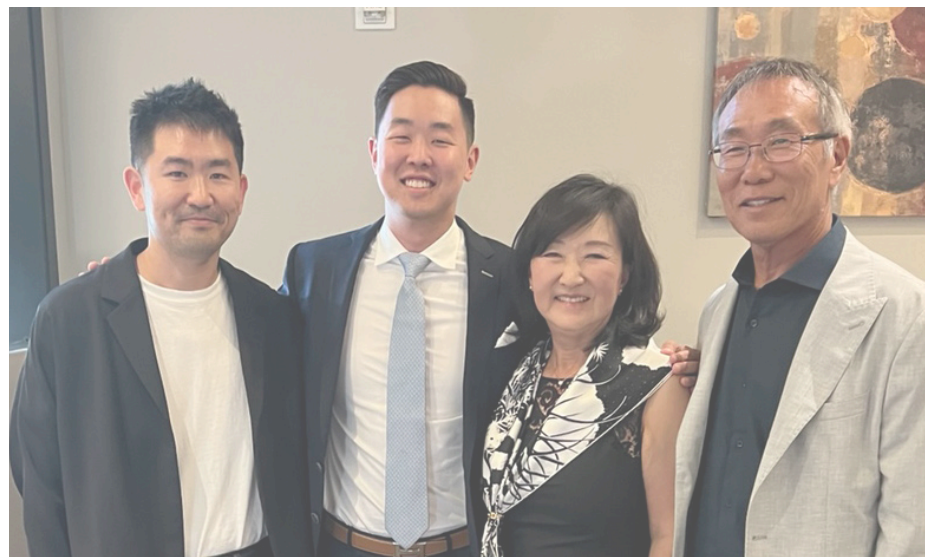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아이를 가져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를 낳지요.”

부부는 슬하에 2명의 아들을 뒀다. 큰 아들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고 둘째는 비뇨기와 전문의로 활약 중이다. 두 아들 모두 남가주에 터를 잡아서 부부는 남가주로 이주해 온 것이다.

요즘 나 동문은 은퇴의 꿀맛을 보고 있는 중이다. 불과 몇 달새 한국에도 몇 번 방문했다. 지난해 모교 홈커밍데이에도 생전 처음 참가했다. 올해 6월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평의원 회의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미국내 서울대 동창회 지부가 무려 27 곳이나 되지만 한창때의 나 동문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고 전한다.

특히 북가주에 거주할 때는 너무 바쁜 데다가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아서 동창 찾기가 어려웠다.



나용화(오른쪽에서 2번째) 동문 부부와 슬하의 두 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가 일하는 데도 그렇고 평생 동안 한국 사람하고 일해 본 적이 없어요.” 은퇴한 지가 얼마 안됐고 현재는 대부분 취미 생활에 전념하고 있다. 한 주에 3번 정도 골프 라운딩에 나설 정도로 열심히다.

부군은 교회로 나 동문은 동창회로 방향을 잡았다. 동창회에서 봉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나 동문은 “한국을 그리워 하는 마음도 있었고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이 필요했다”면서 “평생 동안 한국 사람하고 별로 일한 적도 없고 연결도 없어서 동창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동창도 없는 북가주에서 남가주로 돌아오면서 동창회 참여가 가능해졌다.

어느날 ‘물어 물어서’ 남가주 동문 골프대회를 찾았다가 남가주 지부에 합류하게 됐다. 이후 자연스럽게 평생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데이터베이스 채택 및 런칭 작업에 뛰어들었다.

나 동문은 “평소 동창회는 영향력을 갖고 소셜 임팩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다”면서 “2025년 2월부터 시작하는 남가주 지부에서도 일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나 동문은 남가주 지부에서 부재무를 맡았다. 예전에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파이낸스로 MBA도 받은 바 있다.

모교에서 배운 식품영양 전공은 요즘 두 부부의 영양 밸런스를 지키는 건강 식단을 짜는데 활용하고 있다.

정리 = 장병희 편집위원

‘앤아버의 대부’에서 ‘모교 기부 큰손’으로

지난 2010년 9월 무렵 수의대 동창회장인 신동국 박사에게 한통의 메일이 왔다. 보낸 이는 서울교육대학 장기범 교수. 박종수(수의대 58) 회장 부부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어 편지를 썼다고 했다.

장 교수가 박종수·허정윤 부부를 만난 건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 교수는 앤아버의 미시건 대학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었다. 장 교수는 서울대 음대 출신. 교회에서 박종수 부부를 만나 동문인 걸 알게 됐다. 이후 장 교수 부부를 친동생처럼 각별히 챙겨줬다고 했다. 교수의 세 자녀도 박 회장 부부를 친할아버지·친할머니처럼 따랐다.

40명이 넘는 교회 찬양대원들을 매주 집으로 초대해 점심을 대접하고 찬양연습을 하게 도움을 줬다. 유학생들 가운데 누가 어렵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도와줘 물질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넉넉한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박 회장 부부의 이같은 베품과 보살핌은 미시건 대학에 유학온 많은 학생들에게 변함없이 이뤄졌다.

어느날 장 교수는 학비가 부족해 크게 낙담을 하고 있었다. 학위를 못마치고 귀국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에 내몰린 것. 그 많은 돈을 장만할 길이 없어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다. 하루는 교회 담임목사가 누군가가 장 선생의 학비를 내주겠다고 했으니 돈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다.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학비를 대준 이가 궁금해 채근해봤지만 목사의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박사학위를 받은 장 교수는 귀국해 서울교육대학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장 교수의 궁금증이 풀린 건 10여년이 지난 뒤였다. 교회 목사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주인공은 바로 박종수 부부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편지에서 “박종수 박사님

박종수(수의대 58) 동문의 ‘아름다운 사회 환원’



지난 2013년 10월 1일 오연천 총장(오른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박종수·허정윤 부부.

1977년 시작한 부동산 투자로 부 축적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각계서 나눔 실천 모교 생명공학연구동 ‘박종수홀’로 명명 평생 선교·수의학분야 후학 양성 매진

내외는 남들처럼 유별나게 밖으로 선 행을 내세우는 분들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이라고 썼다.

박종수 부부가 한국에 오면 대전 울산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시건대 동문들이 만나 제쳐놓고 달려와 환영연을 열고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한다.

장 교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박종수 박사님 내외 같은 분들이 계시는 한 삶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끝을 맺었다.

박종수 동문이 미국에 이민 온 해는 1967년. 미시건대 보건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엔 의과대학에서 미생물학, 임상병리학에 관한 논문

도 발표하면서 박사후 과정 학생들을 지도했다.

그의 부동산 투자는 부친의 영향이 컸다. 아버님이 캠퍼스 인근에 집을 한 채 구입,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고는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다. 1977년 대학병원 근처에 42유닛짜리 아파트를 구입, 이것이 부동산 사업의 씨앗이 됐다. 부의 축적이 시작된 것이다.

앤아버는 대학촌이어서 유학생들이 많았다. 이들이 낯선 환경의 캠퍼스에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줬다. 심지어 자신의 집을 개방해 유학생들과 함께 살기도 했다.

그가 앤아버에 거주한 기간은 27년이 나 된다. 제 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앤아버 한인회장을 지낸 박 동문은 특히

한인만을 위한 묘지 5,000기를 조성해 그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는 버지니아주의 에버렛 대학 워싱턴 캠퍼스 학장으로 부임해 학교를 크게 발전시켰다.

그가 LA에 이주한 것은 장남으로서 부모에 효도하기 위해서다. LA에서도 그의 부동산 투자는 계속됐다. UCLA 캠퍼스 인근에 32유닛 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것. 오래된 건물이어서 아파트 관리가 쉽지 않았다. 처음 몇년은 늦은 밤 홈디포로 달려가는 일도 많았다. 청소와 수리를 손수 담당해야 했다.

서울대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자랑스러운 수의대인 상’을 받고 나서다. 평생 장학금·수의대 도서관·서울대 중앙도서관·선한인재 장학금·생명과학연구동 건축 등 ‘기부 큰손’으로 통했다.

지난 2018년 수의대는 박 동문의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에 감사를 표하며 생명공학연구동 1층을 ‘박종수홀’로 명명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모교 발전을 위해 경기도 시흥 소재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서울대 발전기금에 출연하는 등 그의 공적을 기려 오연천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오 총장은 인사말에서 “박종수 박사는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며 평생을 선교와 수의학 분야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며 “출연해 주신 기금은 수의과대학의 생명과학연구 역량 높이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종수 회장이 남기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세계의 비전이 되어 세상을 인도하는 횃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글=박용필(문리대 66)



수의과 대학은 박종수 동문의 모교에 대한 공적을 기려 생명공학연구동 1층을 ‘박종수홀’로 명명했다. 박종수 동문은 제17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 고문으로 동창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홈커밍데이에 한국을 방문한 모습.

19대 서울대 미주 동창회장(2027~2029) 출마의 변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해 활기찬 동창회 만들겠다”



박상근 (법대 75)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 여러분,

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워싱턴 D.C. 동창회장으로 동문들을 섬겼던 박상근입니다. 코비드라는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동문회 모임이나 행사가 쉽지는 않았지만 성심성의껏 도움을 아끼지 않은 임원들과 여러 선후배님들의 도움 덕분에 동문들의 수준에 걸맞는 학술토론을 개최하고 취미에 맞는 소모임을 개발해 이를 통해 동문 간의 유대 강화와 네트워킹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업이 있는 가운데 동문들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귀한 경험을 쌓았고 또한 동문들과의 교제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낀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즐거움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미주동창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 19대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technology의 혁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glocalization의 여파로 지구의 각 지역이 점점 가까워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환경 속에서 저희 미주동창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동문들의 노령화와 새로이 유입되는 동문의 감소는 저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이 저희 동문회에게는 새로운 동문들을 발견하고 기존 동문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네트워킹의 동력을 주고 동시에 젊은 후배 동문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social network를 제공하며, 예전보다 한층 더 잦은 한국의 총동창회와의 연결 등을 통해 미주 동문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미주 동창회장으로 다음의 계획을 추진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1. 동창회 지부의 성장 및 활성화

미주동창회는 북미주 각 지역에 소재한 동창회 지부들이 성장하고 활성화되어야 존재가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지부들이 그간 잘 성장해 왔고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부들도 있습니다. 이미 지부들에서 실행되고 있는 동창회 성장과 활성화를 돕는 프로그램(예: 학술토론, 소그룹 모임 등)을 미주동창회 차원에서

지원하며 동시에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여 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행토록 격려하겠습니다.

2. 더욱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미주동창회는 규모가 제법 있는 지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부도 있습니다. 또한 규모와 상관없이 동문간의 모임이 활발한 지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부도 있습니다. 모임이 활발한 지부와는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그렇지 못한 지부들은 방문이나 다른 연락방법으로 미주동창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세대와 분야를 뛰어 넘는 교류의 장을 분야별로 마련하여 더욱 유익하고 활기찬 동창회를 만들겠습니다.

3. 후배 동문 지원 확대

그간 많은 동문들의 헌신으로 지속되어온 종신이사님들이 세우신 Century Foundation과 SNU Scholarship Foundation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재정을 확보하고 지출을 세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에 뛰어난 동문들을 섭외하여 후배들과 멘토링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겠습니다.

4. 디지털화된 동문회 운영

Face Book, Linkedin, Instagram, Tiktok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미주 전역의 동문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연결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 모교와의 협력 증대

모교의 인사초청을 통해 그리고 미주 동창회원들의 정기적 및 비정기적 모교 방문을 지원하여 모교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미주 지역 동문들의 목소리를 모교에 전달하고 또한 모교가 미주동창회에 원하는 바를 경청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관심이 없었다면 또한 그간 헌신해오신 임원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미주 동창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앞서 가신 선배님들의 노고를 등에 업고 저는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미주동창회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긴 출마의 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근 동문은

박앤우 합동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비즈니스 M&A, 상업용 부동산 전문) 북미주 기독교실업인회 총연합회 회장 (2016-2018)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2001-2002) 워싱턴 한인회 법률고문 (1991-2003) 한인 권익옹호 위원회 사무총장(1996-1997) 서울대 워싱턴DC 지부 회장(2020-2022)

“박상근 동문을 19대 회장 후보로 자랑스럽게 추천합니다”



오인환(문리대 63)
제12대 미주동창회장

젊은 동문들 적극 기용해 탁월한 성과 리더십 보여

미주서울대 동창회 회칙의 인선위원회 제4조에 의거하여 차차기 회장 추천공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에서는 박상근 동문을 차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박상근 동문은 법대 75학번이고 현재 워싱턴 지역 (DC, MD, VA)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전 워싱턴 서울대 동창회 회장

(2020-2022)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워싱턴 서울대 동창회 바둑동호회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고 있으며 2년여 사이에 빠른 회원증가는 물론 워싱턴지역 바둑대회를 열어 지역사회 바둑열기를 올려 놓았습니다. 워싱턴 회장을 맡았을 때는 젊은 동문들을 기용하며 맡은 일을 각자 임원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책임감과 팀워크를 유발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이루어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맡은 일을 충실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서 워싱턴 서울대 동창회에서는 박상근 동문을 자랑스럽게 미주서울대 총동창회 제 19대 차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워싱턴 동창회는 세분의 미주서울대 동창회장님들(박윤수 초대 회장, 8대 이영목회장, 12대 오인환회장)을 배출 한 지역으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여 새회장이 선임되어도 빠른 속도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적 장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세근(자연대 82)
워싱턴DC 전 지부 회장

동문 유대 강화에 헌신한 지역사회 덕망있는 지도자

저는 워싱턴 DC, MD, VA 지역 (DMV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직전 회장으로서, 박상근 동문님을 미주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직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상근 동문님은 그동안 DMV 지역 동창회장으로 헌신적으로 섬기시며 동문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동창회는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며, 동문들이 서

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 기독교실업인 협회를 18년간 변함 없이 섬기셨고, 협회 총연회장을 역임하며 신실한 믿음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많은 한인 기독교 실업인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직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일에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오셨습니다. 또한, 교회 장로로서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서도 덕망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변호사로서 쌓아온 전문성은 그의 리더십을 더욱 빛나게 하며, 미주 한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인격을 갖춘 박상근 동문님께서 미주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으로 봉사하신다면, 동창회의 발전과 단합을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의 헌신적인 리더십과 따뜻한 인품이 미주 동창회를 더욱 발전시키리라 믿으며, 주저 없이 추천드립니다.

1천만불 쇼핑몰 1백만불에 사서 1년 무료 리스로 '윈윈'

아메리칸 드림 롤모델 임천빈(문리대 61) 동문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은 아니었는데 아메리칸 드림은 확실하게 실현한 셈이죠.”

임천빈(Chun Bin Charile, 문리대 61) 동문에게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무대가 됐다.

1950년대 자유당 시절 한국은 전형적인 후진국으로 경제도 정치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시절이다. 그 시기에 고교시절을 보냈다. 특히 부친도 정치에, 육촌 아저씨도 서울시장을 했기에 온갖 부정부패를 체감했던 시절이다. 이런 환경이면 대부분 가업을 이어 정치를 할만한데 청년 임천빈은 다른 길을 택했다.

순수학문인 인류학과에 진학했던 것이다.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교수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에 유학의 길을 매우 멀고도 험했

이 큰' 비즈니스 맨이다. 홀마크사의 캔사스시티 본사를 찾아가 사장을 면담했다. 대담하게 샌디에고 지역 홀마크숍을 차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냈다.

우선 쇼핑몰을 골라서 8개를 차렸다. 팬시하고 예쁜 홀마크숍을 대형 쇼핑몰에 넣으면서 필수숍이 되게 했다. 샌디에고에서 유력한 쇼핑몰이 되려면 홀마크숍을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하는 트렌드로 만들었다. 요즘 같으면 쇼핑몰이나 다운타운엔 스타벅스 커피숍이 하나쯤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 1970년대 초에도 그랬다.

8개가 되다보니 주인이 1주일에 한번씩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8개 모두 팔기 시작했어요. 50만 달러 이상 받고 팔았습니다.”

목돈을 벌었다. 그런데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에 미국 경제가 나빠졌다.

맨손으로 부를 일군 부동산 비즈니스맨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 수상 '영예'
'I Will Work for Nothing'은 삶의 모토
주류 사회서 동기부여 강사로도 알려져

다. 우선 평화봉사단(피스코) 코디네이터가 되면서 혼자 힘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년간의 돈 벌이가 끝나고 사촌형이 있는 샌디에고에 가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서 대학 카운슬러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굳이 어드미션을 받은 미시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어렵게 수속까지 마친 미시간 주립 대학에 가지 않고 샌디에고에 눌러 앉아 학부부터 시작했다. 공부에 자질이 있었는지 학업은 순탄했다. MBA과정을 거쳐 회계학으로 박사까지 받았다.

샌디에고 시청에서 회계감사관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한 피트 윌슨을 시장으로 만났다. 덕분에 샌디에고 주류인사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의 명쾌한 설명과 뛰어난 분석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절친 피트 윌슨이 주지사가 된 후에 샌디에고를 방문했다가 아직도 시에서 일하고 있는 임 동문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해보라는 자극을 주었다. 자신은 상원의원을 거쳐 주지사가 됐는데 능력도 출중한 임 동문이 주저 앉아 아메리칸 드림을 꾸지 않는 모습이 아쉬웠던 것 같다.

임 동문은 우선 홀마크라는 프랜차이즈를 하나 시작했다. 한국으로 치면 아트박스 같은 비즈니스다. 카드도 팔고 문방구류도 팔고 팬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모델이다. 임 동문은 '스케일

은행들도 넘어가니까 은행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던 부동산이 FDIC로 넘어왔다. 홀마크로 조성된 자금으로 쇼핑몰을 샀다. 1000만 달러짜리 쇼핑몰을 FDIC에서 100만 달러에 구할 수 있었다.

짜게 사기는 했지만 비즈니스가 안돼 공실률이 높은 쇼핑몰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정면 돌파.

세입자들에게 1년 무료 리스를 조건으로 입주 받았다. 마치 팬데믹때 일부 쇼핑몰에서 렌트비를 깎아줬던 것과 같다. 다만 무려 1년간 무료였다는 점이 임 동문의 사업가적 스케일이다. 그의 쇼핑몰은 30개쯤 된다.

결과는 6개월만에 모두 채웠다. 부동산 에이전트도 놀랐다.

덕분에 임 동문은 포클로저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졌다. 능력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비즈니스 어려운 사람을 도와 비즈니스도 살리고 쇼핑몰도 살린 것이다. 그러면 1년 무료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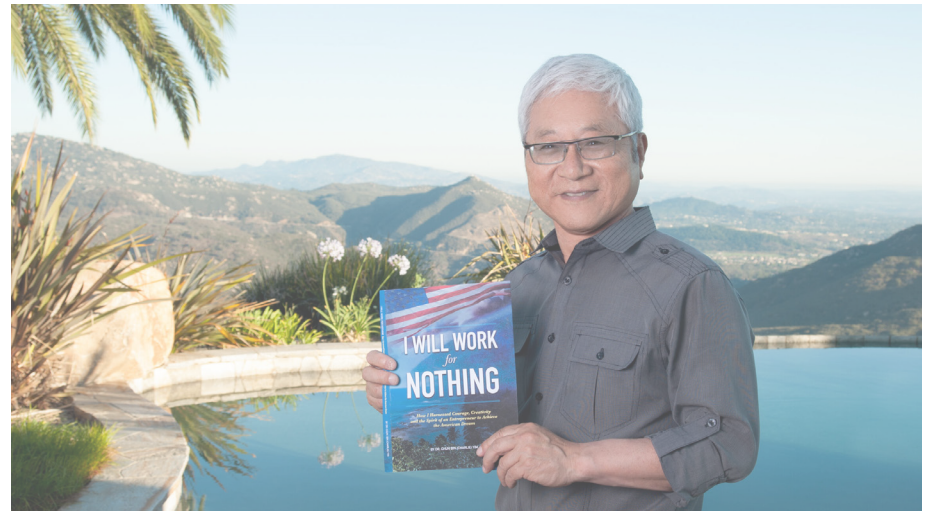
미국에 온 1967년 일이다. 막상 샌디에고 스테이트에서 공부하기 위한 학비와 기숙사비를 벌어야 했는데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한국 사람인 탓에 일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의 묘안은 무급직이었다.

“I will work for nothing.”

함께 일자리를 찾던 한인학생이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임 동문은 바로 캠퍼스 식당으로 갔다.

매니저한테 “I will work for noth-



임천빈 동문의 영문 자서전 'I Will work for Nothing.' 반세기에 걸친 그의 이민 여정을 담았다.



지난 2017년 이민자 최고의 영예인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훈장'을 받았다.

ing”이라고 말했다. 매니저는 그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청소를 시켰다.

임동문은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나 싶었다. 2시간 동안 아주 깨끗이 청소했다”고 회상했다.

그의 간절함은 매니저가 깨끗이 청소된 화장실을 보고 매우 놀랐다. 다음날부터 출근했다. 지나고 보니 work for nothing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용감한 시도였던 것이다.

그의 성공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다. 2017년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의 훈장을 받았다. 이민자로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엘리스 아일랜드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은 반드시 거쳐야 했던 관문이었다. 이 섬의 이름을 따 제정된 명예 훈장은 이민자들의 도전과 꿈, 성취를 대변해 최고 권위가 있다.

명예훈장을 받은 이들은 아폴로 11호 우주인으로 사상 2번째로 달에 착륙한 버크 올드린을 비롯해 오하이오 주지사 존 카시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저명한 여성인권운동가인 말라라 유사 프자이 등이 포함됐다.

임천빈 동문은 이들과 함께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메달로 성공한 아메리칸 드림을 확인한 순간이다.

그는 본격적인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부를 일궜다.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임 동문

은 30개가 넘는 기업을 운영했고 대형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한 것도 50건이 넘는다.

업계에선 그의 사업수완을 일컬어 '임천빈의 중력 원리'라고 부른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기본 원칙이다.

종업원들에게는 열심히 하면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 줬다. 임 동문은 홀마크 매장 종업원들에게 경영을 책임지도록 맡겨 그들이 자립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15년 임 동문은 영문 자서전 'I Will Work for Nothing'을 출간했다. 서툰 영어로 “I will work for nothing”라는 화장실 청소 업소가 소상히 소개된다. 매니저가 보고는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때 ‘아, 이 자시면 되겠구나’ 깨달았고 평생 모토로 지켜왔다는 얘기가 담겨 있다. 자신을 지금까지 가슴뛰게 하는 삶의 좌우명이 된 것이다.

임 동문은 주류사회에서도 '동기부여 강사'(motivation speaker)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혁신의 마인드를 갖게끔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수출자유지역) 흥보다.

샌디에고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한국과 일본 등지를 돌며 마킬라도라 세일즈에 나섰다. 그 결과 삼성, LG 등 한국의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임 동문은 샌디에고 한인사회에서 올드타이머로 존경 받는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한인회 명예회장을 지내며 기부는 물론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퇴역 군인의 복지를 위해 100만 달러를 선뜻 기부해 주류사회에서 '기부 큰손'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요즘도 매일 미국에는 이민자들이 몰려온다. 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롤모델로 임천빈 동문은 자리하고 있다. 부인 임재정 여사가 있고 자녀로는 루시와 제니퍼가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항암 효과 큐커민 많은 카레 자주 먹으면 좋다

김의신(의대 66 졸업) 박사 건강 세미나 지상중계

MD앤더슨 암센터, UC어바인 의료원 방사선과 교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WCU분자외과학교수다. 지난달에 치매에 이어서 이번달에는 암에 대한 통찰과 정보를 소개한다.

김의신(의대 66 졸업) 동문은 세계적 권위의 암 전문의이자 핵의학자로 현재는 건강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김 동문은 텍사스

용기 있는 암환자의 마지막

암 환자 중에도 죽음을 용감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 의대 3학년 학생이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부모가 부자인데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대신했다. 몽고 울란바토르에 병원을 세웠다. 부모가 그 비용을 모두 냈다. 처음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혹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암 환자 중에서 “나는 살만큼 살았다. 더 이상 치료를 해서 괜히 부작용 때문에 고통 받을 거 없이 그만두겠다” 라는 식으로 치료를 거부하고 몇 년 더 살다가 죽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암환자의 사망

통증은 이제 약으로 많이 조절하지만 몸 전체가 허약하니까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도 못 하고 좋아하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웃음이 없어진다. 근력이 쇠약하니까 흥척스러울 정도로 피골이 상경한다. 금방 죽는 것은 아닌데 많은 환자가 죽는다는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를 못한다.

모든 것이 악순환이다. 기운이 없어서 눈도 제대로 뜨고 감지 못한다. 제대로 깊은 수면을 못한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도 심장이 그냥 너무 약해져서 제대로 뛰지 않은 것이다. 영양 부족도 있고 의지력이 전혀 없으니 복합적으로 모든 기관이 제 기능을 점점 상실하는 것이다. 죽음이 가까우면 진통제를 쓰고 물린 계통 주사를 쓰는데 임종이 가까우면 환자들이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감 중에 청력은 죽기 직전까지 눈도 감고 움직이지도 않지만 계속 들을 수 있다. 그런 환자 앞에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단지 반응만 못할 뿐이다.

웰다잉

하루 하루 걸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단순한 일상 생활이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을 보면 엄청난 축복이다. 사람은 짧은 삶이지만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웰다잉’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라는 문제다.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만이 잘 준비할 수 있다. 내일 죽을지 살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평소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이야말로 충실하게 살 수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암 환자들 중에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치료 잘 받고 하루를 최대한 성실하게 보낸다.



세계적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는 지난 2월 한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해 암에 관한 얘기를 들려줬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해
암 보다 영양부족과 심장 기능 약화로 사망
근심 걱정 대신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달걀·두부 등 단백질과 발효음식 섭취 권장**

췌장암

췌장암은 담도암과 함께 암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암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우선 진단이 늦다. 췌장이 위장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에서 덩어리가 생겨서 옆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 또는 위장이나 십이지장을 누를 때까지 증세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진단을 늦게 하고 또 자체가 섬유질의 벽을 쌓기 때문에 약을 줬을 때 암세포 안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도 암의 근본 원인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하지만 암과 스트레스와는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에서 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를 부식해서 위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췌장에서 나오는 관이 십이지장에서 담관하고 만나는데 그 지점에서 산이 거꾸로 역류가 돼서 췌장으로 들어가서 췌장염을 일으킨다고 생각된다. 물론 부모에서 나쁜 유전자를 이어 받아서 생길 가능성이 15%, 나머지는 환경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몸을 망가뜨리고 또 나쁜 생활 습관, 즉 흡연이나 과음 등이 전부 요인이 될 수 있다.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덩어리가 1cm보다 커지기까지 증세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췌장은 L shape이라는 기억자 모양인데 머리 부분, 몸 꼬리 부분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기관과의 관계로 증세가 다르다. 그래서 작든 크든 사이즈보다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머리 부분은 담도에서 나오는 관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위에 암 덩어리가 생겨서 그 관

을 누르면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기 때문에 황달이 오거나 소화액이 나와야 변이 제대로 노란 색깔로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변 색깔이 하얗게 된다든지 또 오줌 색깔이 오히려 까매진다. 그리고 몸에 생기면 몸 바로 뒤에 큰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신경을 누르니까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허리가 아파서 척추 문제인 줄 알고 정형외과 가서 척추 사진도 찍는데 모든 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증세가 달라지니까 환자나 가족이 결정할 게 아니고 기본적인 피 검사, 소변 검사를 해 보면 쉽게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암 중에서 가장 통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암 중 하나가 췌장암이다. 그러나 몸통 꼬리에 있는 덩어리들은 커질 때까지 별로 증상이 없고 커지면 그 옆에 비장이나 소장을 눌러서 막연하게 아랫배가 아프거나 비교적 증세가 커져서 배속이 불편해야 증세가 나타나서 진단이 늦어진다. 대신에 꼬리에 생기는 건 드물다. 주로 머리카나 몸에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배가 아플 때는 위장, 간장, 췌장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 예방법

대개 40세부터 모든 병이 생기니까 모두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권하는 대로 자기 습관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예방에 좋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인도사람이 주로 먹는 카레에 있는 '큐커민'이라는 성분이 암 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시키는 nf카파b라는 유전자를 억제하기 때문에 예방하는데 가장 좋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예방이 되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음식으로 다른 것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나는 매일 아침에 달걀하고 두부, 고구마를 찌서 김을 싸서 먹는다. 이것이 모두 단백질이다. 늙어가는 사람일수록 단백질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물론 암 환자도 단백질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데 단백질이 주로 동물성 고기에 많이 있는데 아침부터 동물성 고기를 먹기는 어려우니 달걀, 고구마, 두부 등을 찌서 먹으면 모두 단백질이니까 굉장히 좋다. 특히 아침에는 사과 하나씩 먹는데 껍질을 벗기면 손해 보는 것이다. 물로 잘 씻어서 껍질이 있는 자체로 먹으면 도움이 된다.

아침을 세끼중 가장 많이 먹는 편이고 점심이나 저녁을 적게 먹는다. 특히 저녁에는 가능한 된장 찌개나 청국장이나 발효된 음식이 좋다. 장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침에는 물론 낫도나 요거트를 항상 먹는다.

건강에 나쁜 음식은 달든지 또는 기름기가 있는 것이다. 기름기도 나쁜 기름과 좋은 기름인데 올리브 오일 같은 건 좋은 식물성 기름이다. 그러나 돼지고기, 소고기 등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나쁜 기름이 있다. 이것이 들어가면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 염증은 몸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모든 병을 일으킨다. 40세 전에는 우리 몸에서 그런 나쁜 것을 분해하는 효소 등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두 번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40세부터는 몸에 필요한 것이 점점 적게 나오므로 우선 식사 양도 적게 하고 고기도 매일 먹던 것을 1주일에 한 번 먹는 것이 좋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한 가지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몸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골고루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자주 먹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흡연하고 과음이다.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술 자체가 장에 있는 200조개의 균에 영향을 미친다. 장에 유익한 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몸 전체의 건강이 망가지게 돼 있다.

암은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

우선 암은 고혈압, 당뇨 심지어 감기와 같은 만성 질환의 하나다. 관리만 잘하면 근본 치료는 못해도 계속 살 수 있고 환자나 가족들이 암만 걸린 것처럼 또 특별히 별을 받아서 생긴 병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다른 만성병하고 똑같이 생각을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강한 자기 의지가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암 질환 예방은 무엇보다도 절제된 생활, 나쁜 물질과 좋은 물질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샤인 기부.
당신이 만드는
빛나는 변화

You are my SNUshine!

눈에 보이는 변화, 참여하는 재미, 함께 만드는 미래

서울대를 밝히는 가장 작은 움직임, 당신의 기부에서 시작됩니다. 블록 하나 하나를 쌓아가듯,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서울대학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샤인기부에 \$300이상(1회) 참여하는 후원자님께 웰컴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샤인 굿즈 자세히 보기
snu.or.kr/snushine

샤인 기부 참여하기
snu.or.kr/snushine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940동 2층
TEL 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WEB www.snu.or.kr

“열심히 읽고 토론하며 동문들과 지식의 바다에 풍덩~”

창립 1주년 맞은 뉴욕 북클럽 기념 세미나 개최

창립 1주년을 맞은 뉴욕 북클럽은 지난 3월 1일 회원 및 지인들을 초청해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북클럽을 리드하고 있는 신응남(농대 70, 15대 미주동창회장) 동문은 이날 환영 인사에서 “오늘 북클럽 1주년 기념 세미나에 모인 21세기의 코스모폴리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이 시대 뉴욕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며, 역사속에 행진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북클럽의 의미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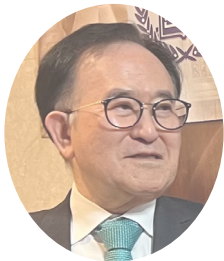
신 동문은 또 “신영복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먼거리의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공부를 통해 깨달은 인류에 대한 사랑과 공감, 발까지로 옮겨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말했고 중국 신해혁명 이후 중국 국민성 개조를 위해 애쓴 혁명가 루쉰은 그의 <아큐정전>에서 ‘본래 땅위에는 길이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며 “지난 1년간 우리는 그렇게 함께 길을 만들어왔다”고 자부했다.

미동부 문협 회장을 역임한 김송희 원로시인은 축하의 격려사와 함께 제 6회 미당시맥상의 수상작인 시 ‘이별은 고요할수록 좋다’를 낭송하며 뉴욕 북클럽 1주년을 축하했다.



창립 1주년을 맞은 뉴욕 북클럽 회원 동문들이 지난 3월1일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고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중남미 문학 구체적 작품 예로 들며 일별 세계 역사의 흐름과 한국 문학 연구도 강연



연봉원
(문리대 61)

이날 연봉원(문리대 61) 변호사는 ‘중남미 문학과 나의 독서인생 70년’을 주제로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우선 “중남미 문학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과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로 나눌 수 있다.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는 여러나라이나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는 브라질 한 나라이다. 그러나 남미 대륙의 50%, 인구의 50%가 브라질 한 나라에 살고 있다”며 “중남미를 떠나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는 스페인 한 나라 뿐이지만, 포르투갈어는 포르투갈 본토를 위시하여 아조리스, 마데이라 섬, Cabo Verde, Guine Bissao, Sao Tome Principe 아프리카의 앙골라, 모잠비크, 인도의 고아 지방, 인도네시아 북단의 티몰, 중국의 마카오 등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그의 강연 요약이다.

1. 중남미의 스페인어 문학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 문학에 묻혀 있었으나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피나는 투쟁 속에서 중남미 고유의 문학이 탄생하였다. 스페인의 신고전주의에 파묻혀 있던 라틴 아메리카 문학은 신대륙의 자연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을 그리면서 정치적, 문화적 자립을 추구했던 것이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음으로 자유를 갈구하는 문학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

1860년대부터 사실주의에 낭만주의를 가미한 문학 사조가 콜롬비아, 페루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소치는 남미식 목동(Gaucha)의 생활을 그린 시와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에는 멕시코, 쿠바, 페루, 니카라과 등에서 근대주의 운동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지방 풍속의 자연주의적 묘사를 뛰어넘어 내면적 감성을 분석하는 문학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고,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작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칠레의 시인 Pablo Neruda, 페루의 Vargas Llosa, 콜롬비아의 Gabriel Garcia Marquez 가 특히 유명하다. 이들의 작품을 중남미 특색이 강한 ‘마술적 사실주의’라고도 칭한다.

특히 스페인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준 네루다의 작품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을 노래한 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시다. 말케스의 소설 ‘백년간의 고독(100 anos de soledad)’은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역사적 가치도 풍부한 소설이다. 이작품은 기괴한 사건, 비범한 인물들, 환상, 서스펜스, 유머 등이 혼재한 남미 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한가지 특색은 그들이 주로 외교관 출신이면서 공산주의자라는 것이다. 6.25 사변도 미국이 일으켰고, 이북과 중공은 피해자인 것처럼 쓴 것은 옥의 티라 하겠다.

2. 브라질 문학

브라질 문학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본래의 특성이 섞인 작품이 대부분이었으나, 포르투갈어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서사시 ‘Os Lusíadas’를 쓴 까몽이스의 후예답게 많은 시인과 소설가를 배출하였다.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 브라질을 대표하는 Machado de Assis의 단편 수십편을 처음으로 한국어로 필자가 번역하여 소개했다. Machado Assis의 작품은 세계 20 개국이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독일어 문학의 Kaka, 영문학의 James Joyce, 프랑스 문학의 Marcel Proust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 외 브라질을 대표하는 모든 문학가를 다 소개

할 수는 없고, 20세기 후반기를 대표하는 Jorge Amado 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의 대표작인 ‘플로를 부인과 그녀의 두 남편’ (dona Flor e seus dois maridos)은 브라질 최초의 수도였던 바이아를 중심한 이야기인데 브라질 토속, 아프리카에서 온 Black Magic인 Macumba, 북미의 루지아나에 퍼진 Voodoo와 비슷한 종교가 혼합된 소설로서 유머러스하면서도 브라질 특유의 토색적인 소설이다. 그 내용은 건달인 남편이 카니발 퍼레이드에서 술을 마시고 질탕하게 놀다가 심장발작으로 갑자기 죽은 후, 모든 면에서 모범인 약사와 재혼하여 모두 결혼 잘 하였다고 부러워하였으나, 부부 관계가 너무 기계적이고 평범하고 시시한 것에 실증을 느낀 Flor 부인이 마꿈바 무당에게 부탁해서 죽은 건달 남편이 환생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가 영적으로 환생해서 생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기막히게 잘 쓰여진 소설이다.

그 외 세계적으로 유명한 ‘Alquemist’를 쓴 Paulo Coelho의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상으로 주마간산 식으로 중남미 문학을 일별하였으나 노벨 문학수상자만도 6명이나 배출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은 무시할 수 없는 경지를 쌓았다고 생각한다.

이날 두번째 강연은 코넬대학 정신과 교수인 김해암(의대 58) 박사가 <세계 역사의 흐름과 한국 문화>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다음은 강연 요약이다.

“세계 대전을 2 번 치루고 핵무기 경쟁을 하면서 인류는 새로운 역사인식을 하게 되었다.

역사가 뿐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인류의 장래에 대하여 염려하게 되고, 경쟁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역사를 풀이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느냐 함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 간다. 그래서 나 같은 역사



김해암
(의대 58)

학의 문외한인 정신과 학도가 역사를 논의하는 바 되었다.

나는 컬럼비아 대학 인문학 센터인 Heyman Humanity Center의 창립자이자 소장으로서 1980년 후반에서 25년 이상 창의적 지도를 한 분을 알게 되어, 초창기부터 학술 세미나에 참여해 30여년 연구하는 희귀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 그 지적 유산을 남기고 가려는 마음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다.

디베리 교수는 나의 이웃 동네에 살고, 그 비서가 우리와 같은 교회 멤버로 개인적으로도 친근한 사이였다. 그분의 동려였던 Ainslie Embree는 인도 문화학자이고 한국인 Ja Hyun Haboush 등을 알게 되어 한국학 연구에 도움이 되었고,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이 글의 바탕을 이루는 장서들의 하나이다.

그러면 나의 연구의 골자는 무엇인가?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함석헌 신천 옹은 H.G. Wells, Gandhi and George Fox를 들어 그의 학문의 반려자로 삼았다. 특히 웰즈의 역사관을 따랐다면 틀림이 없다고 본다. 세계 역사는 초창기부터 동진을 하다가 근대에 와서 서진을 하고, 지구상의 모든 고장을 발견하고 조사해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많은 석학들이 지구의 유래며, 역사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나의 관점은 역사인식을 지구의 존속과 생물의 존속,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명력의 현 위치를 잘 파악함으로써 정신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있다.”

뉴욕 북클럽은 김해암 박사의 강좌로 1주년 특별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이 유익한 질문을 던지며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이 행사의 말미를 장식한 것은 감동의 순간이며 보람이었다.

글=신응남(농대 70)

‘아버지 이름으로’ 큰딸은 5만불, 둘째 딸은 9만불 기부

6남매 둔 김창수(의대 54) 안숙선(간호대) 부부
지역봉사 부모 뜻 새겨 자녀들이 기념일 마다 기부

커네티컷 기부

김창수(의대 54) 안숙선(간호대) 동문 부부는 커네티컷 한인사회에서 자녀가 많은 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두 부부의 아들 둘, 딸 넷 6남매는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인이자 봉사하는 리더로 자리잡았다.

2023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미주동창회 제32차 평의원 회의에는 김창수 안숙선 동문 부부와 함께 큰딸 비비안이 참석했다. 중가주 프레즈노에서 안과 의사를 하고 있는 큰딸은 부모님이 동문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주동창회에 1만불을 기부해 골드이사 리스트에 아버지 김창수 동문의 이름을 올렸다.

김창수 동문은 당시 “아이들 교육은 모두 아내가 담당했고 덕분에 저는 병원 일과 커뮤니티에만 전념해 일할 수 있었다”며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지난 3월1일 구순연을 기념해 커네티컷 한인회관에서 열린 구순연에서는 큰 딸은 아버지 이름으로 커네티컷 한인회관에 5만불을, 둘째딸 부부는 부모님이

섬겨온 커네티컷 한인교회 건축 헌금으로 9만불을 도네이션한 것이다. 하객으로 축의금으로 건넨 8000불 가량의 돈도 모두 커네티컷 한인회에 기부했다.

김창수 동문은 커네티컷 한인회장을 지내면서 2세 역사 교육을 위한 한인회관 건립에 10만불을 기부하는 등 한인 한인 정체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한국 정부가 재미동포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을 받았다.

김 동문은 또 예일대학병원을 거쳐 약 40여 년 동안 흉곽외과 전문의를 지내면서 의학 분야에서 명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등의 봉사로 커네티컷 주지사와 뉴 헤이븐 시장상을 받기도 했다.

아버지의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과 봉사 정신을 알기에 자녀들은 기념할 일이 생기면 아버지의 모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로 아버지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김창수 동문의 둘째 사위 폴 최는 세계적인 대형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파트너 변호사로 하버드대 시카고 지역 동문회장을 거쳐 2015년 하버드대 총동문회장에 선출돼 한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 3월1일 커네티컷 한인회관에서 열린 김창수 안숙선 동문 부부의 구순연을 맞아 윤근식 커네티컷 한인회장이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손자 데릭 최 또한 하버드 재학시절 교지 크립슨의 편집장으로 선출돼 활약했으며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 동문은 “너무나 가난했던 1950년대 한국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우리 한인들이 열심히 일해 사업으로 성공하고 전문가로서도 많은 분야에서

성공했는데 서로 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 미국에서 더욱 존경받고 빛이 날 것”이라며 동창회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돼주길 당부했다. 이날 커네티컷 한인회의 윤근식 회장은 그동안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김창수 동문 가족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수도 워싱턴DC에 울려 퍼진 우리의 ‘워싱턴 아리랑’

황보한(공대 56) 동문 작사, 2월 조지 메이슨대서 초연
서울서 워싱턴까지 5만리 이민자들 애뜻한 정서 담아

워싱턴 DC 지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 십 리도 못 가서 발 병 난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한과 통곡, 그리고 외침을 담은 노래다.

아리랑은 한자로 풀이하면 아리랑(我理朗), 나 아我, 이치 리理, 즐거울 랑朗으로, ‘나를 깨닫는 기쁨’, ‘내가 깨닫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아리랑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진 본질적 자아를 일컫는다. 이처럼 아리랑이 가진 깊은 뜻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새로운 형태로 탄생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미국 워싱턴 D.C.에서 새롭게 창작된 ‘워싱턴 아리랑’이 초연되었다.

2025년 2월 15일, 조지 메이슨 대학교 Merten Hall에서 동양정신문화연구원(회장 김면기) 주최로 ‘워싱턴 아리랑’의 초연 및 발표회가 열렸다.

노랫말은 황보한(공대 화공과 56) 박사가, 작곡은 안효은(피바디 음대) 박사가 맡았으며, 피바디 음대 박사 과정 중인 소프라노 박보영, 비올리스트 이관지, 첼리스트 수 제시완,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상재(음대18)동문이 무대를 꾸몄다.

한국에는 50여 개 이상의 지역별 아리랑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리랑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가면서, 각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왔다. ‘워싱턴 아리랑’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곡이다.

작사가 황보한 박사는 “지난해 봄, 동양정신문화연구원의 김면기 회장으로 부터 ‘워싱턴 아리랑’의 작사를 의뢰 받았다. 서울에서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5만리(약 20,000km)인 점에 착안하여 ‘오만리’라는 단어를 가사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곡은 고향을 떠나 먼 이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애뜻한 정서를 담고 있다. 또한 새로운 터전에서



황보한 동문이 작사한 ‘워싱턴 아리랑’의 초연 발표회가 지난 2월 동양정신문화연구원 주최로 조지 메이슨 대학교 내 머튼홀에서 열렸다. 황보한 동문이 주최측, 연주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정착해가는 한국인들의 기개와 희망을 표현하고자 했다. 아리랑 특유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작곡을 맡은 안효은은 “아리랑은 한국인의 삶과 애환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곡이다. ‘워싱턴 아리랑’에서는 한국을 떠나 미국 워싱턴 D.C.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정서를 밝고 활기찬 장조로 표현하는 한편, 고국을 향한 애뜻한 그리움은 단조로 담아냈다. 두 가지 정서가 자연스럽게 엮이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도록 작곡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D.C.라는 도시가 지닌 상징성과 맞물려, ‘워싱턴 아리랑’은 미국 사회에서 자리 잡은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곡이 되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이민자들의 삶과 역사를 되새기며, 세대를 넘어 함께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아리랑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이 노래를 통해 이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 링크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https://youtu.be/YRTIO_Ur1Z0

취재= 한정희<편집의원·미대81>



샌디에고 동문들이 지난 3월8일 모처럼 화창한 토요일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인 에일스미스에서 모임을 갖고 입구 배럴들 앞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화창한 토요일 맥주 양조장 투어한 동문들 ‘하하호호~’

샌디에고 지부

신희선 동문, 아들 백일 떡 가져와 함께 나눠 공대 57 선배부터 07 막내까지 즐거운 시간

비가 종종 내리는 3월의 샌디에고가 지난 8일 모처럼 화창한 토요일을 맞았다. 동문회는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인 에일스미스(AleSmith Brewing Company)에서 2025년 첫 행사를 가졌는데 실내와 야외 공간이 트여있어 화창한 날씨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AleSmith Brewing Company는 1995년에 문을 연 곳으로 .394 Pale Ale 이 가장 유명하다. .394 Pale Ale 은 Padres 의 레전드 타자이자 명실상부 ‘Mr. Padre’ 인 토니 그윈이 1994년 메이저리그에서 기록한 3할 9푼 4리의 타율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3할 9푼 4리의 타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메이저리그 역사상 마지막 4할 타자인 테드 윌리엄스가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1941년 기록한 4할 6리에 이어 가장 4할에 근접했던 기록이다. 테드 윌리엄스의 고향도 샌디에고이고 마이너리그 시절 파드레스(당시 파드

레스는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샌디에고는 야구로 한 가닥 하는 곳임에 틀림없다.

이름조차 야구의 향기가 풍기는 ‘Dugout 19’라는 방에 피자과 치킨을 배치하고 나니 동문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혼자 오신 분들, 부부 동반, 자녀 동반 등 다양한 구성으로 동문회 첫 행사를 찾았다. 접수를 하고 맛있는 맥주와 음료들을 맛볼 수 있도록 참가자 당 티켓 두 장씩을 드렸다. 맥주와 곁들일 수 있도록 준비한 피자과 치킨이 맛이 좋고 맥주와 잘 어울려서 인기가 많았다.

맥주를 함께 하며 그간의 안부도 묻고 즐거운 대화가 오갔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신희선(공대 97) 동문의 4개월 된 아들 주안이었다. 많은 동문들이 주안의 귀여움에 눈길을 떼지 못했는데 도착

했을 때 새근새근 자고 있던 주안은 잠에서 깨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도 방실방실 웃었다. 신희선 동문이 준비해온 백설기, 수수팥떡, 송편 등 100일 떡도 아주 맛있었다.

동문회에 처음 오는 분들도 있는 만큼 서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에 어릴 때 데리고 온 딸이 다음주 결혼해 감회가 새롭다는 이제봉(인문대 88) 동문, 동문회 참석을 위해 어바인에서부터 먼 길을 마다 않은 오중호(공대 90) 동문, 한국보다 미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은 염두호(공대 57) 선배부터 샌디에고에 도착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오백록(의대 03) 동문, 오늘의 막내인 문지훈(공대 07) 동문까지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소개를 했다.

소개를 마친 후에 입구에 있는 배럴들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했다. 4개월 아기부터 맥주로 얼굴이 불긋불긋해진 분들까지 여러 분들의 즐거운 얼굴이 사진에 담겼다.

이어 투어 가이드 Jeff의 인솔에 따라 19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실제로 맥주가 만들어지는 brewery 투어를 했다. 거대한 발효 탱크, 열린 천장, 맥주의 재료인 홉의 상큼한 향기가 인상적이었다. 맥주를 버번 위스키를 생산한 배럴에 넣어 숙성시키는 모습도 신기했다. 투어 하면 맥주 반 잔씩은 돌리려나 하던 기대가 무색해지긴 했지만 즐거운 투어였다. 투어에 참여하지 않고 행사장에 머문 동문들은 송년회 이후 첫 행사라 그간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첫 행사에는 모두 마흔 다섯 분이 찾아주셨는데 화창한 샌디에고의 봄 주말에 많은 분들이 모임에 참여해 감사한 마음이고, 다음 행사인 Mission Bay Park 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취재=이상문(의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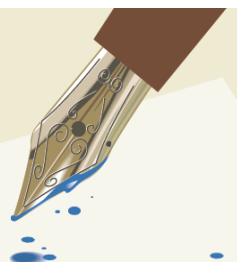


왼쪽사진은 투어가이드의 인솔 아래 양조장 투어를 하고 있는 동문들.

이날 신희선 동문의 4개월된 아들은 방실방실 웃으며 동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ausa17@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아우랑가바드의 아잔타 불교 석굴. 바위 절벽에 29개의 석굴이 모여 있는데 동굴 법당에는 다양한 불상들이 조각돼 있다. 오른쪽 사진은 거대 도시 뭍바이를 유명하게 만든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 촬영지인 빨래터.

하기환 동문(공대 66)의 인도 문화 탐방

손으로 파낸 동굴 법당과 석불 ‘신에 대한 경외심’

호수 안의 자그니와스 궁전

점심을 먹으러 자이푸르에서 맛집으로 유명하다는 현지 ‘반디 식당’을 찾았다. 관광객은 우리밖에 없었다. 현지 주민들은 ‘난’이라는 얇은 빵에 닭고기로 된 커리를 찍어 먹는다. 포크나 수저를 사용하는 대신 오른손으로 아주 깨끗하게 접시를 비운다. 커리가 손에 묻으면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접시를 쓸어가며 잘도 먹는다. 우리 모두 배부르게 먹었다. 맥주값 포함해서 1인당 10달러 전후이니 역시 가격이 싸다. 우리가 묵는 호텔에서 저녁을 한 끼 했는데 1인당 50달러 넘었었다. 돈은 고사하고 음식이 느끼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꿀을 넣은 닭고기 커리를 계속 시켰다. 여행 10일이 지나도 전혀 질리지 않았고, 한식 생각도 나지 않았으니 인도 음식이 우리 팀 입에 맞는 것 같았다.

우리는 다음 여행지인 우다이푸르에 도착했다. 공항에 내려 우선 프리페이드(Prepaid) 택시 창구로 가서 호텔까지 요금을 지불했다. 행선지까지 미리 선불하면 악명높은 택시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 몇 명이 싸움하듯 들어들어 흥정할 필요가 없으니 아주 편한 창구였다. 인도 당국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공항과 기차역에 프리페이드 택시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 택시를 타고 호텔로 오면서 택시 기사와 다음 날 관광 예약을 했다. 호텔에서 알선해 주는 전용 택시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이다. 하루 종일 팁 포함해서 50달러가 넘지 않았다. 물론 관광지 입장료와 식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노하우를 배웠다. 관광 가이드나 호텔 기사들이 추천하는 대부분의 식당은 비싸고 맛도 별로였다. 그러나, 이날처럼 신뢰할 수 있는 기사를 만나면 소용도 현지인이 가는 곳으로 안내한다. 그렇게 좋은 가격과 좋은 물건을 고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좋은 기사 덕분에 아그라에서 가죽 구두 2개와 슬리퍼 3개를 40불 정도에 산적이 있다. 구두는 영국제 지미추이고 슬리퍼는 독일제 베켄스

톡이다. 물론 명품 짝퉁이다. 여행 중 신고 다니는데 발이 편하니 그것으로 만족했다.

우리는 Lake City 로 알려진 우다이푸르 대표적인 관광지 피촐라 호수를 찾았다. 이 호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공호수이다. 호수 동쪽에 시티펠리스가 있고 호수 속엔 자그니와스 섬과 자그만디르 섬이 있다. 우리가 투

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트리 수십 명이 죽기도 한 곳이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검색은 철저해서 모든 소지품을 검사받고 들어선다. 가격 대비 점심은 맛이 별로인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인도 전통 빵 난(Naan)이 500루피라니 보통 식당보다 4배나 비싸다. 어느 사이 우리 입맛이 인도 서민을 닮아가는가 보다 하고 서로 보고 웃었다.

공항서 선불 택시 이용, 바가지 요금 피해
‘난’ 빵에 닭고기+커리는 값 싸고 맛도 좋아

매연·교통체증 심한 뭍바이 빈부차 극심
축구장 16배 악샤르담 힌두사원 위용
네팔 홍수 덕분에 인도 문화·맛집 탐방

숙한 호텔은 호수가 바라보이는 산 위에 지어진 럭셔리 호텔이었다. 이 호텔 옥상에서는 호수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었다. 호수 주변에 지어진 궁전과 호텔들은 스위스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었다. 우리는 피촐라 호수 안에 지어진 자그니와스궁을 보러 보트를 탔다. 우리가 들린 호수 안의 자그니와스 궁전은 작지만 예쁜 건물이었다. 이 궁전 옆에 타지레이크 호텔이 있다. 하루 숙박에 1000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인도의 물가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일 것이다.

뭍바이와 ‘슬럼독 밀리어네어’

이튿날 새벽에 뭍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공항에 내려서 8시간 동안 기사가 딸린 자동차를 렌트했다. 호텔은 나중에 체크인하기로 하고 관광지부터 다닐 생각이었다. 뭍바이 게이트 같은 관광지를 돌다 보니 점심 때가 되었다. 예전에 왔을 때 투숙한 뭍바이 바닷가에 있는 타지마할호텔에서 점심을 하기로 했다. 2009년에 이 호텔은 테

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트리 수십 명이 죽기도 한 곳이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검색은 철저해서 모든 소지품을 검사받고 들어선다. 가격 대비 점심은 맛이 별로인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인도 전통 빵 난(Naan)이 500루피라니 보통 식당보다 4배나 비싸다. 어느 사이 우리 입맛이 인도 서민을 닮아가는가 보다 하고 서로 보고 웃었다.

거대도시 뭍바이가 유명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Slumdog Millionaire)’가 한몫을 한 것도 맞다. 그 영화 촬영 현장이 이제는 관광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에 나온 빨래터와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찾았다. 도시에서 빨래를 걷어와 세탁하는 빨래터와 붙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의 허름하고 작은 집속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그 좁은 공간은 다리미질하는 작업장인 동시에 거주 공간이기도 했다. 방이 너무 좁아 길게 누워 잘 수도 없을 정도였다. 빈부 차가 극과 극인 인도. 궁전호텔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서민들도 있다. 빨래터 바로 옆엔 개발붐이 불어 50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앞으로 빨래터도 없어지고 이곳에도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 같다.

뭍바이는 영국 식민지 때에 상업도시로 번성한 곳이다. 옛날 유적지가 별로 없다. 그 대신 상업지구가 발달되어 있다. 인건비가 워낙 싸고 기술자도 많아서 모든 옷을 4시간 정도면 만들

어서 배달해 준다고 호객한다. 거대도시답게 뭍바이는 매연과 교통체증이 심해서 호텔로 찾아 들어갔다.

10월 16일, 수요일이 되었다. 뭍바이는 영국이 개발한 도시였다. 도시 중심지엔 옛날 영국 식민지 때 지은 고풍스러운 영국식의 건물이 많이 보인다. 거대도시답게 교통체증이 심해서 어딜 가기도 힘들다. 아침에 엘레펀트(Elephant)섬에 가려고 했다가 포기. 섬에서 돌아오는 배편이 오후 5시반 밖에 없기에 비행기편을 못 맞출 것 같아 포기한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뭍바이 재래시장을 가보기로 했다. 오래된 시장은 옛날 고색창연한 건물 안에 있었다. 1800년대부터 잡화를 파는 시장이라고 했다. 현지인들이 바글거렸고 잡화와 식료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로 차 있다. 길 건너에는 옷감 가게가 있다. 인도인 여성이 즐겨입는 사리 옷감이 가게마다 짝 차 있었는데 색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인도의 옷감 제조 실력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여성용 스카프로 캐시미어보다 좋은 페시미아 몇 개를 선물용으로 샀다. 인도 물가가 많이 싸고 인도의 화폐 루피가 약세니, 가지고 간 미국 달러가 힘을 쓰는 것 같다. 이번도 호텔 현지인이 추천해 준 시내 식당에서 점심 겸 저녁을 먹었다. 인도 식당은 선택을 잘해야 한다. 주인이 이슬람 신도면 절대 술을 안 판다. 뭍바이도 삼복더위처럼 찌는 날씨에 꼭 스팀사우나 들어 온 것처럼 덥다. 그렇기에 식당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 그러나 식당 주인을 잘못 만나면 술 종류는 아예 말이 안 된다. 메뉴는 맛있는 인도 전통 커리 음식이지만 주인이 무슬림이면 맥주는 마시지도 팔지도 않는다.

아잔타와 엘로라석굴

우리는 저녁 비행기로 아우랑가바드(Aurangabad)로 떠났다. 유명한 아잔타(Ajanta) 석굴을 보기 위해서다. 아우랑가바드에서 묵고 이튿날 기대했던 아잔타 석굴을 보러 나섰다. 역시 이



델리 재리시장에 있는 먼지투성이의 길거리 식당. 난(naan) 빵에 닭고기, 커리면 한끼 식사로 아주 훌륭했다. 가성비도 최고. 오른쪽 사진은 아름답기로 소문난 델리의 이슬람왕들 묘지 사원 이사칸툼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하기환 동문(오른쪽).

인도 학생들이 한국 말로 인사... K팝 인기 대단

곳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교통이 막혀 두 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했다. 불가사의한 아잔타 석굴은 어떤 곳인가. 아잔타는 인도 북서부에 위치해 있다. 바위 절벽에 29개의 석굴이 모인 곳이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약 1세기 동안 지어진 전기 석굴과, 5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지어진 후기 석굴로 나뉜다. 인도의 풍속이나 불교에 관한 것들이 다채롭게 조각되어 있는 동굴법당. 벽면만이 아니라 기둥, 대들보, 천장 등 광대한 공간의 구석구석에 까지 불법이 묘사되어 있다. 8세기 들어 인도가 다시 힌두교로 돌아서며 불교는 쇠퇴한다. 그에 따라 약 1000년 이상 잊혀졌던 아잔타 석굴.

거대한 바위 절벽에 파 놓은 석굴은 모두 29개 있는데, 모든 게 불교 부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기원전부터 줄기차게 동굴을 파내어 법당을 만든 인간의 신에 대한 경외심. 순전히 사람의 손으로만 파낸 동굴. 놀라운 일이다. 어느 석굴은 하나 만드는데 30년이 넘게 걸렸다. 한국의 경주 석굴암보다 더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 아마 그 당시 불교는 돌산에 동굴을 만들어 부처님을 모시는 게 유행한 것도 같다. 특히 석굴 26번은 사방 벽이 조각으로 채워졌고 부처님이 누운 와상이 한쪽 벽을 크게 장식하고 있었다. 석굴은 대부분 부처님이 가운데 크게 자리잡고 벽면과 천장에 부처님 일대기를 벽화로 그려 넣었다. 더운 날씨와 몬순 관계로 그림 채색이 많이 상했지만 지금도 알아볼 수가 있다.

이튿날은 아잔타 석굴 근처에 있는 또 하나의 유명한 동굴사원을 찾아 나섰다. 엘로라 석굴이 그곳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다. 엘로라 석굴에는 불교만이 아니라 힌두교, 자이나교의 동굴사원이 같이 있다. 불교 석굴은 12곳뿐이다. 시대별로 불교가 석굴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뒤를 이어 힌두교가 따르고, 마지막으로 자이나교가 지었다고 한다. 불교 석굴 중 10호가 가장 유명한데 일명 '모든 것을 성취한 석굴'로도 불린다. 천장과 회랑이 아름다운 10호 석굴은, 여럿이 모여 함께 예배를 보는 강

당이었다고 한다.

엘로라 석굴 중 가장 훌륭한 건축으로 꼽히는 곳은 16호 석굴이다. 이곳을 카일라샤(Kailasha)사원으로 부르는데, 힌두교 파괴의 신 시바를 모신 사원이다. 이곳을 석굴로 부르기는 애매하다. 왜냐하면 바위산을 통째로 위로부터 깎아 아래로 내려가며 만들었기 때문이다. 높이가 33m, 너비가 54m, 길이가 46m로 시바신의 상징인 링가를 나타내는 탑이 중앙에 있다.

힌두교인들이 모시는 링가는 다산과 함께 남성 성기를 뜻한다. 힌두교 동굴 끝에는 불교 동굴과 달리 아무 것도 없다. 불교는 항상 석가모니 상이 정중앙에 있었다. 힌두교 동굴은 무언가 있는 걸 옮겼는지, 신 종류가 너무 많아 하나를 지정할 수가 없어 그런지 모르겠다.

자이나교 동굴은 처음 들어보는 종교 법당이였다. 자이나 교도들이 판 동굴 속을 보면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같았다. 중앙에 부처님을 닮은 상이 있고 코끼리 조각상도 보인다. 궁금하여 나중에 알아봤는데, 부처님과 동시에 만들어진 고대 종교가 자이나교였다. 자이나교 석굴에서 내가 본 석상은 교주 '마하비라' 였던 것이다. 무소유 정신을 가르치는 자이나교. 불교는 세계화에 성공했으나 자이나교는 지금 인도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인도의 재벌인 타타그룹 회장처럼 경제인 상당수가 자이나교도들이다.

마침 수학여행을 온 듯한 학생들이 우리를 보더니 한국말로 인사를 건넨다. K-POP 효과가 정말 대단한 것을 느꼈다. 힘들게 발품을 팔았던 석굴 유적 탐방도 끝났다. 이 더위에 그 많은 동굴을 걸어 둘러보기도 쉽지 않았다. 분명히 만 걸음 이상 걸은 건 분명했다. 종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눈으로 확인한 날이었다.

최대의 악샤르담 힌두교 사원

우리는 석굴 탐방을 끝내고 저녁 비행기로 델리로 향했다. 도착한 델리 시내에는 역시 더웠고 스모그가 많았다. 우리는 이튿날 힌두교의 성지로 불리는 악샤르담(Akshardham)이란 템플을 찾았

다. 그동안 엄청난 종교 유적지들을 둘러보았기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찾아갔던 것. 그런데 인파와 건물 크기와 정교한 조각 작품에 정말 놀랐다. 이 사원은 2005년 완공되었는데 세계 최대 크기의 힌두교 사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축구장 16배 크기의 악샤르담은 현대판 앙코르와트(Angkor Wat)로 불릴 만했다. 악샤르담 건설에는 타지마할처럼 5년간 무려 1만5000명의 건축·공예 전문가들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높이 43m에 세워진 장대한 돔과 본당을 중심으로 새겨진 화려한 조각상. 그리고 분홍빛 건물이 예술 조각처럼 보이는데 시큐리티가 철저해서 전화기도 못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사진도 못 찍었다. 철저한 검색으로 줄지어 입장하는 데만 30분 이상이 걸린다. 인도 어디에 가나 관광지 입장료는 두 종류다. 자국인과 외국인. 외국인은 현지인보다 5배에서 15배까지 비싸게 받는다. 예전의 중국 관광에도 현지인과 외국인을 차별했는데, 인도처럼 15배까진 아니었다.

악샤르담의 규모는 정말 대단했다. 로마에 있는 가톨릭 바티칸성당, 사우디에 있는 이슬람의 모스크와 비교되는 힌두사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섬세한 조각으로 사원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 대강당 중앙에는 불교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부처님 대신 거대한 시바신 동상이 자리 잡고 있다. 사원에 입장하는 사람들 복장도 까다롭다. 당연히 신발은 벗어야 하고 무릎이 안 보이게 바지를 입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

시간이 남아 이슬람 왕이 거주한 레드포트(Red Fort)를 찾아갔다. 내 기억으로는 아그라 궁보다 규모도 크고 성곽 높이도 상당한 성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온통 쓰레기 밭으로 변해 버렸다. 우리는 델리에서 가장 크다는 모스크 앞에 재래시장을 들렀다. 오토바이 소음과 매연과 사람으로 꽉 찬 시장바닥. 신분이 낮은 계급의 노동자는 길바닥에 접시를 놓고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 여기도 주로 이슬람인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 앞에서 닭고기를 굽고 난 빵

을 화덕 벽에 붙여 구워 내는 재래식 시장의 식당. 우리는 그중에서 깨끗해 보이는 식당에 들어섰다. 그건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출발할 때 들었던 종교. 인도여행에서는 물은 꼭 병물을 마시고 음식은 호텔식당을 찾아라. 아마 배탈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파가 붐비는 재래시장, 그것도 먼지투성이 길가 식당을 찾은 것이다. 닭고기 고치와 난 빵을 주문해서 4명이 배부르게 점심을 먹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계산을 하려니 10달러가 채 안 되었다. 정말 싸도 너무 싸다. 이런 가격인데도 맛도 좋았고 배탈도 나지 않았다. 과연 가성비 최고의 식당이었다.

드디어 10월 20일, 한국으로 떠나는 일요일을 맞았다. 한국행 비행기가 오후 늦게 떠나서 관광 중독자처럼 유적 탐방에 나섰다. 델리에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무슬림 왕들 무덤, 소위 왕릉이 많았다. 따지고 보면 이번 인도여행에서 무덤과 종교와 왕들의 거처만 둘러본 것 같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후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건 사실이다.

인도여행에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종교에 따라 왕들 무덤이 다르다는 점이다. 인도에서 무슬림 왕들은 죽으면 큰 무덤을 만들어 그곳에 안치되었다. 타지마할처럼. 그런데 인도에서 힌두교 왕의 무덤은 볼 수 없다. 힌두교 교리대로 왕이나 서민이나 모두 화장을 했으니까. 이것도 이번 여행에서 발품을 팔아가며 배운 공부 중 하나였다.

오후 늦게 한국 비행기를 타고 21일 새벽에 인천에 내렸다. 처음에는 에베레스트를 가기 위해 출발했는데 인도 문화탐방만 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어찌면 네팔의 홍수 때문에 인도 체류를 늘린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도 들었다. 서울에 도착한 첫인상. 역시 서울은 깨끗하고 질서가 있고 안전한 나라였다. 인도와 비교한다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 대한민국이 천국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이 글을 맺으면서 손을 봐 준 스키협회 회원인 테미 김 작가에게 감사사를 전한다. <끝>

1955년 시발자동차로 시작해 현대차 SDV까지

2025년 1월 SNU 포럼 초청 강사는 한국 자동차공학 한림원의 김재만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기아자동차에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기아자동차 중앙연구소장, 현대차와 합병후에는 현대기아자동차 제품 개발센터장(부사장)을 역임한 전형적인 기술 임원이다. 이후 한국 자동차공학 학회 회장, 고려대 초빙교수, SL 연구소 소장(사장)을 거쳐 현재 한국 자동차공학 한림원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연구, 개발, 생산, 서비스의 전 과정의 실무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앞장서 이끌어온 한국자동차산업의 산 증인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GM까지

1911년 최초의 자동차는 고종의 영국 제 다임러 4기통 리무진으로 조선 총독 부 황실용으로 들어왔다. 민간인으로 처음 자가용을 가졌던 사람은 손병희 선생으로 1915년부터 캐딜락을 타고 다녔다.

1955년 '시발 자동차'가 '재생자동차'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차를 만들었다. 정비 기술자 최무성 삼형제가 협력해서 만든 회사로 군용 질차 부품을 재생해 만들었다. 1955년부터 1961년까지 2700대 정도를 판매했다. 이름이 '시발'로 최초와 시작의 의미인데 우리 발음을 좀 빠르게 하면 이상하기 들려서 시자 다음에 하이픈을 넣었다. 질차였는데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휘발유 드럼통이었다. 드럼통을 펴서 차체를 만들었다. 초기에는 드럼통을 롤러로 밀고 일일이 수작업을 했으나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수요가 많아지자 기존의 작업 방법으로는 물량을 맞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드럼통을 절반으로 잘라서 대충 편 다음에 간밤 중에 을지로 같은 큰 길에 내다 놓으면 한밤중에 그 위를 GMC 3트럭이 지나 다니면서 손으로 퍼듯 납작하게 해줬다고 전한다. 이렇게 퍼진 철판을 다시 모아 손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서 형태를 만들었다.

새나라자동차 이전에 신진공업사 김창호씨가 있다. 1957년에 신성호라는 재생차를 300대 만들고 중단했다.

1962년에 새나라 자동차가 나왔다. 5.16 이후에 일본 닛산 브루버드를 가져와 1964년까지 2713대를 만들어 판매했다. 김창호씨의 신진공업사가 1965년에 새나라자동차가 폐업한 후에 새나라 자동차를 인수했다. 1966년에 도요타하고 기술 제휴해서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했다. 그런데 1972년에 도요타가 철수했다. 이유는 주올래 4원칙 때문이다. 대만하고 무역 거래를 하는 나라에서 사업하는 회사는 중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도요타가 철수하게 됐다. 1976년에 GM이 들어와서 GM 코리아가 되고 나중에 GM 대우가 됐다.

◆새나라 자동차 이후

새나라 자동차는 재생차인 시발 택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일본의 양

3. 내일의 이야기 > 甲 같은 乙 기업

독보적 기술을 통한 갑-을의 위치 변화

乙 을	IDRA Group * 초대형 금속 사출 기술 	ASML * 극자외선 노광기 	GTT * LNG탱크 설계 	nVIDIA의 arm 인수 시도 (20) * nVIA : 시스템반도체 설계 * arm : AP 아키텍처 설계 업체 <small>AP : Application Processor (5세대 기기 구동을 위한 핵심 칩)</small> 
	 * 기가캐스팅 	  	  	

1976년 한국 최초의 국산 승용차 포니 개발 1987~99년 마이카 붐 타고 프라이드 빅히트 소나타 · 스포티지 · 카니발 · 산타페는 시대 대표

산차를 한국에 처음 도입하면서 종합자동차 회사의 효시가 되었다. 새나라 자동차가 계속되지 못한 이유는 5.16 이후에 4대 의혹 사건에 휘말려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아산업이 1969년에 출시한 삼륜 트럭 T-600이 있다. 원래 일본의 동양공업(마즈다) 기술로 생산한 자동차로 1974년까지 7700대를 만들었다. 당시 삼발이라고 지게 우마차를 대체하는 용달차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 이후에 T-600이 단종되고 T-2000 1톤, 15톤, 삼륜차로 바뀌게 됐다.

정주영 회장은 원래 건설업자였는데 1967년에 현대자동차를 설립했다.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에 개통될 때 그는 "도로는 혈관이고 자동차는 혈액"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동생인 정세영 회장이 현대차 회장을 맡으면서 오늘날의 현대자동차를 수출 산업으로까지 이끌었다. 포니는 1976년에 한국 첫 독자 고유 모델로, 세계로는 16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2번째로 만든 보물 같은 차종이다.

기아산업(나중에 기아자동차)은 1973년 광명 소하리에 현대적인 종합자동차 공장을 처음으로 완공했다. 소하리 공장은 총 18만 평인데 당시 논으로 따지면 200평 짜리 900마지기여서 쌀을 연3600가마 생산할 수 있었고 이는 시가로 2천만 원 정도였다. 현 시가로는 100배가 돼 20억 원 정도다. 기아의 김철호 회장은 소출이 20억이 되는 농지를 자동차산업에 사용하면 엄청난 이익과 국가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김선홍 회장은 김철호 회장과 달리 사원부터 그룹 회장까지 했다. 자칭 대표 사

원이라고 말했는데 서울 공대 기계과를 나왔고 기술 서적을 독파했다. 모든 신간 기술 서적을 김선홍 회장이 읽었다.

정몽구 회장에게는 여러가지 일화가 있다. 1998년도 미국 시장 조사 회사인 JD Power사가 평가한 자동차 품질 테스트에서 현대차의 품질 평가가 꼴찌를 했다. 이때 충격을 받은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 품질 경영에 직접 나섰고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동차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됐다. 품질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01년에 양재동 신사옥으로 이사하면서 1층 로비에 품질 전시실을 설치했고 경쟁차를 볼 수 있는 카리프트까지 설치했다.

시물레이션을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 주요 지역에 퍼져 있는 자동차 딜러들과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품질과 관련된 불만 사항을 접수 처리하게 했다. 품질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서 생산 현장부터 임직원까지 100%로 공유하면서 현대차의 점진적인 품질을 개선해 나갔다. 또 현대차에 품질 패스제를 도입하게 된다. 품질 패스제는 확실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는 정회장의 특별 지시로 만들어졌다.

◆포니, 프라이드의 성공

1976년 포니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개발된 국산 승용차이고 독자 모델이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르가 디자인해서 출시 전부터 큰 화제를 일으켰던 차종이다. 산업 환경이 열악했지만 야심찬 목표와 추진력으로 기술력을 집중시켜 내놓은 모델이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975년 12월 울산에서 대규모 공

장을 열고 1976년부터 본격 양산해 첫 해에만 국내 시장 점유율이 43.5%를 차지했다.

프라이드는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출하됐다. 당시 프라이드 모델이 해치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기 빠진 닭이라고 말했다. 초기에 이미지 개선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마이카 붐을 타고 대히트한 차종이 됐다.

행운이 있었다. 원래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중화학 합리화 조치에 의해서 현대, 대우, 신진 자동차만 승용차를 생산하고 기아 자동차는 1톤 이상 트럭만 제조하라는 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기아는 승용차 계획을 접고 화물차만 제작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승용차 없는 화물차만 만드는 회사가 지구상에는 없다.

그래서 3사 프로젝트라고 마즈다가 개발, 설계하고 기아가 생산, 포드가 판매하는 메이플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유는 마즈다는 소형차를 미국에 팔아야 되는데 레이건 정부 때 대미 수출 자율 규제를 하게 돼서 마즈다가 개발한 프라이드가 미국에 상륙할 수가 없게 됐다. 포드는 마이카 붐에 따라서 소형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형차를 바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판매 욕심에, 마즈다는 미국에 직접 팔지 못하는 욕심, 기아차는 승용차를 생산하지 못했던 삼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1987년부터 1999년까지 가장 오래 팔린 스테디셀러 모델이 됐다. 내수 74만 대, 수출에는 71만 대로 총 145만 대라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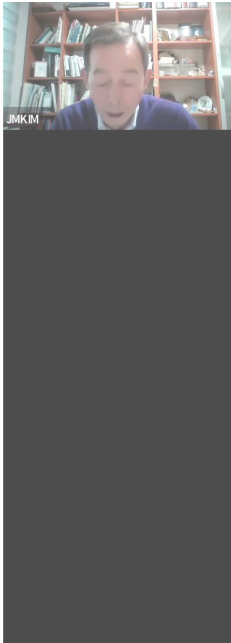
◆소나타, 스포티지

한국의 중심 모델 중에는 Y2 소나타가 있다. 소나타는 Y2라는 프로젝트로 1988년 6월에 출시됐다. 스텔라가 원래 중형차 중에서 잘 팔리는 차였는데 소형차를 기초로 해서 키운 차종이기 때문에 중형차로는 역량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Y2플랜은 그랜저 전문 구동 메카니즘하고 플랫폼을 공용화 해서 수출 전략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1988년 올림픽 유치



지상과 항공 통합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향하여

3. 내일의 이야기 > 자동차의 경계가 무너지다



와 당시 3저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스포티지가 출시될 당시 어반형이나 승용형이라는 명칭이 없었다. 주로 포드의 브롱코나 미쓰비시 파제, 스즈키 사무라이 같은 각진 짙은 느낌의 디자인이었다.

현재 스포티지는 5세대까지 나왔다. 원래 프라이드를 이어서 포드 마즈다 등과 3사 프로젝트를 하려고 포드에서 50이라는 소형 SUV를 같이 만들자고 해서 추진했다. 덕분에 기아는 포드의 신차 개발 프로세스나 시험 시설, 개발 프로세스에서 많이 배우게 됐다. 신차 개발할 때 페이스원, 페이스투라는 것으로 나누는데 페이스원 단계에서 포드의 시스템을 기아가 많이 배웠다. 그런데 포드에서 과도한 요구했다. 기아차의 주식을 50%를 달라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난색을 표명했더니 소하리 공장 말고 화성 공장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그 회사의 50% 달라는 요구가 왔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기아가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포티지다.

◆카니발, 산타페

다음 중심 모델은 카니발이다. 1995년에 개발해서 2000억을 투자해서 1998년 1월에 출시했다. 기아가 97년 말 IMF로 상당히 어려웠다. 그때 카니발이 엄청난 수요가 있었다. 그래서 기아가 희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당시 미국에는 크라이슬러의 캐러밴, 윈드스터, 도요타 시에나, 혼다 오디세이 같은 미니밴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한국에서 벤치마킹을 했지만 독자 카니발이 수출 전략형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 워라벨 추세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미니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학교에서 카풀, 지방자치제 의원이나 또 국회의원 대외적으로 카니발을 타고 다닌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카니발 구입에 몇 개월씩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카니발 구매에 상당시간을

비용 절감 · 경쟁력 위해 배터리 직접 생산 미래 자동차 핵심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이동수단 넘어 스마트한 공간으로 변신

가다려야 된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 중심 모델이 산타페다. 산타페가 미국 현지 기호에 맞도록 EF소나타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노코크다. 프레임이 없는 모노코크 모델로 독자 개발했다. 스포티지 보다 약간 큰 중형 SUV 모델인데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였다. LCD 4라는 코드 네임으로 해서 컨셉트카를 개발했고 1세대 산타페는 글로벌 모델 중에서 포드 익스플로러나 당시 SUV를 주름을 잡던 프레임 타입이 아니고 모노코크 타입이다.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포비아는 지난해 한국의 청나아 파트에서 벤츠전기차 eq2가 사고를 내고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생긴 것이다. 주차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

조사해 보니 2018년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와 벤츠가 불안한 동맹을 하고 있었다. eq의 초기 모델은 LG 에너지 솔루션 것인데 2020년부터는 파라시스를 쓰고 있다. 결국 배터리 품질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어야 되는데 전기차는 위험하다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어렵다 또는 비싸다는 식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전기차 포비아’라고 부를 수 있다.

대응 방안은 배터리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나 충전기 보급을 앞으로 올해 안에 5만 곳으로 늘리거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시설을 늘리는 등 이미지를 재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당 화재 건수가 많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전기차가 내연차에 비해서 많지 않다. 예를 들면 화재가 나면 온도가 높고

화재가 진압이 어렵다는 것인데 전기차 화재 예방하는 소방 대책을 연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화재 진압 시스템이 최근 개발돼 유용하다는 것을 현대차에서 입증했다. 배터리 팩에 구멍을 뚫어 물을 주입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차 하단에 물만 분쇄해도 진압될 수 있는 원리다. 포비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MS)이 있다. 과충전 또는 미세 이상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감지해서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동시에 현대 기아차 원격 지원 센터로 문제가 전송된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서 BMS 기능이 더 고도화 된다. BMS를 통해서 배터리 정보를 각 자동차 회사의 클라우드에 모은 뒤 AI가 분석해서 해결하는 온보드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에 치중하다 보니 전기차가 좀 뒤쳐졌다. 전기차 지각생에게 오히려 만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혁신적으로 화재 근본 원인인 전지액을 전고체로 바꾸는 것을 2027년,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 앞당길 계획이다. 배터리를 지금은 아웃소싱하고 있지만 자동차 회사가 직접 개발하거나 투자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이다. 전체 원가에서 40%를 아웃소싱 하니까 컨트롤 범위가 줄어들어 자체 제작하거나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차 대안 찾는 자동차 기업

현대차가 EREV를 확정해서 GV 70부터 적용한다. EREV(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는 주행거리 연장 전기

차 시스템을 말한다. 전기차 주행 거리는 200~300킬로인데 배터리가 소진되면 엔진이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엔진이 추가로 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최고 900킬로까지 주행하는데 적어도 600~800킬로까지는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다.

전기차(BEV)는 배터리를 100% 외부 충전으로 구동하고 하이브리드(HEV)는 엔진을 주행할 때만 쓰고 저속일때는 배터리를 쓰고 저속 구간만 보조 주행을 한다. 그런데 EREV의 (개스를 소모하는)엔진은 100%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사용하고 배터리로 100% 주행한다. 그래서 외부 충전이 없다. 즉, 전기 자동차와 똑같은데 외부 충전없이 주행 거리를 늘렸다.

그래서 EREV가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자체 개발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판매 통계를 보면 중국 BYD가 가장 많이 팔았다. 뒤를 이어 테슬라, 현대기아차가 7위다. BYD가 많이 팔 수 있었던 것은 내재화율이 높기 때문이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 생산하면 생산비용이 20~30% 절감되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그만큼 시장 경쟁력이 높아진다.

◆현대 모빌리티 기업 변신

현대자동차의 변신이 기대가 된다. 정 의선 회장이 취임한 지 4년이 됐고 영업이익은 7배 증가했다. 현대차는 하지만 이제 자율 주행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미래항공모빌리티(AAM)를 위해 미국 최대 자율주행 기업인 웨이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아이오닉 5에 웨이모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웨이모의 로보택시에 투입한다.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가플랜트에서 생산된 아이오닉 5에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웨이모는 2020년부터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 주행거리가 4년 동안 3천만 킬로를 뛰었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으로 SDV(Software Defined Vehicle)가 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래서 자동차의 주행 성능, 편의 기능, 안전 기능, 감성 품질까지 관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OTA(Over the air)를 하게 된다. OTA는 통합 데이터 또는 클라우드 등으로 구성되는 전자 아키텍처 서비스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OTA 통한 무선 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AS 센터에 가지 않고도 성능 개선, 리콜 보류 대상이 이뤄져 자동차가 모바일이 된다는 모바일 폰이 된다고 보면 된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반독점, AI 그리고 검색의 미래: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송명국(철학 90)
캘스테이트 롱비치 경영학과 교수



반독점 소송 진행 중인 구글 지배력 약화될 경우 점유율 확대 유력 후보는 마이크로소프트일까 챗 GPT · 퍼플렉서티 같은 AI 답변 검색 엔진일까

최근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는 댓가로 애플과 삼성 등에 거액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1998년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형성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려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이 조명받고 있다.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이 사건은 시장질서 재편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기술 산업의 흐름을 돌아보게 한다.

1990년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선도 하던 회사는 넷스케이프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응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결합하여 무료로 배포했으며, PC 제조업체들에게도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탑재를 제한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 문서에는 “숨통을 조여라” “짓밟아 버려라” 같은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관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

점 판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넷스케이프가 아닌 구글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무료 번들 전략으로 경쟁력을 잃은 넷스케이프는 1998년 AOL에 인수되었다. 반면,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격적인 전략을 축소하고 보다 신중한 경쟁 전략을 택하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 무렵 설립된 구글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했다. 2008년 출시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는 빠른 속도, 구글의 다른 서비스와의 원활한 연동 등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갔다. 그 결과, 2012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32.8%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으며, 2019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4.4%까지 급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판결의 또 다른 수혜자는 애플이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1985년에 애플에서 해고되었으나, 1997년 위기에 처한 애플을 구하기 위해 복귀했다. 당시 애플은 PC 시장 점유율이 4% 미만으로 추락하며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다. 역

설적이게도, 애플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회생을 도운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였다. 당시 반독점 소송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이 사라질 경우 독점혐의가 더욱 강해질 것을 염려하여 애플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그 대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Mac 운영체제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복제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혁신에 집중했다. 그 결과, 아이팟(2001년), 아이폰(2007년), 아이패드(2010년)와 같은 제품을 탄생시키며 애플은 새로운 혁신 리더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가치는 애플보다 훨씬 높았으나, 모바일 컴퓨팅의 부상으로 인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경쟁에서 뒤처져, 2010년 시가총액에서 애플에 뒤처지게 되었다.

2025년, 이제 구글이 반독점 소송의 중심에 서 있다. 구글의 지배력이 약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의 주요 경쟁 검색엔

진 Bing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물론 구글 검색엔진의 성능이 Bing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글을 기본 엔진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돌아갈 혜택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구글에 대한 더 큰 위협은 AI 기반 검색 기술의 부상이다.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처럼 사용자가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며 정보를 찾을 필요 없이, AI가 직접 요약된 답변을 제공하는 챗GPT나 퍼플렉서티 같은 AI 답변 엔진이 기존 검색 엔진의 역할을 점차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AI 검색이 보편화될 경우, 검색 결과에 나타난 링크를 클릭하는 사용자 수가 줄어들어 구글의 핵심 수익원인 광고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구글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AI 기반 검색 기능을 도입하고 있지만, 검색 광고를 기반으로 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위험을 감안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신흥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날 구글 반독점 소송과 AI 기반 검색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검색 엔진 시장 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의 지형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3.1 운동 본반아 일어난 중국 5.4 운동 때문에...



이회백
(의대 61 · 시애틀)

1차 세계대전 후 세계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소위 14 항목은 큰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나 노련한 정치가인 프랑스의 조르주 클

산동반도 차지하려는 일본 수작에 말려 미국의 윌슨 대통령 민족자결주의 포기 실망한 중국의 대학생 · 지식인들 거리로 모택동, 중국 내전서 승리하는 모멘텀 돼

레망소 총리는 “하느님도 단지 열가지만 가지셨는데(Good Lord has only Ten)” 하고 14항목을 비꼬았다. 베트남, 알제리 등 식민지를 내놓을 생각이 없던 그는 정치 초년생인 목사의 아들 윌슨의 설교에 코웃음을 쳤다. 영국도 비슷했다. 그와 반대로 식민지 지배하에서 신음하던 약소 민족들은 민족자결권을 보장하자는

제 5 항에 열광했다. 우리도 희망을 걸고 김규식 박사를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다. 그러나 허사였고 파리에서 접시 닦으면서 베트남 독립을 요구하는 호치민은 북도에서 쫓겨났다.

3.1 운동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힘이 되도록 국내에서 일제에 항거하는 운동을 벌여달라는 김규식 박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어쨌던 이 3.1 운동을 본 중국인들은 한국인에게서 큰 감명을 받았다.

강화회의에서 윌슨은 처음에는 이상주의자로서 약소국 편을 들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강대국인 프랑스, 영국과 타협하는 현실주의자로 변했다. 이탈리아는 전승국인데도 약소한 탓에 아드리아 해 건너편에 있는 항구, Fiume(Reka)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퇴장해버렸다. 이것은 무솔리니가 득세하는 계기가 된다.

1차대전 중 일본은 독일을 산동반도에서 쫓아내고 대신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도 1917년 여름 독일에 선전포고를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아메리카 퍼스트’의 덫

“왜 우리 돈으로 남의 나라 국경을 지켜야 하고 또 싸워줘야 합니까.” 운을 떼 그는 급기야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찌어 놓았다. “우리는 외국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의 국익 우선)’를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을 때 훨씬 더 잘 살았고 부강했습니다.”

대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사를 떠올리겠지만 천만에. 꼭 85년 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무렵 찰스 린드버그(1902~1974)가 한 말이다.

그가 누구인가. 사상 최초로 대서양을 논스톱 횡단 비행한 미국의 영웅이다.

‘아메리카 퍼스트 위원회(AFC)’ 대변인 격으로 활동한 그는 줄곧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관여해선 안 된다”며 고립주의 운동을 펼쳤다.

심지어 영국이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다 해도 미국의 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AFC는 한때 회원이 100만 명에 육박했을 만큼 거대 단체였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설치된 지부만도 450개에 달했다. 그것도 회비를 꼬박꼬박 내는 멤버들이어서 결속력이 무척 셧다. 공화·민주 정당원들은 물론 농민·기업인, 공산당원까지 가입했다.

회원들의 면면은 굵직하고도 화려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를 비롯해 싱클레어 루이스(노벨문학상), 윌트 디즈니, 제럴드 포드(훗날 대통령) 등등. 존 F. 케네디도 100달러를 성금으로 냈다니 AFC의 존재감이 어떠한지 알 만하겠다.

린드버그의 연설 사진을 보면 뒤에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크게 걸려 있어 눈길을 끈다. 왜 워싱턴을? AFC는 이 건국대통령을 ‘미국 우선’의 창시자로 꼽는다. 워싱턴의 퇴임사를 읽어 보면 이해가 간다. “다른 나라의 골치 아픈 일에 절대 얽히지 말라.” 한마디로 미국 우선, 곧 고립주의 노선을 걸으라는 얘기 아닌가. 워싱턴이 남긴 말이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건국이념으로 봐도 무방할 터.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워싱턴의 주문

에 따라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어 잠깐 ‘외도’를 했지만 이내 고향인 고립주의로 되돌아갔다.

이런 미국을 가리켜 당시 영국의 한 신문이 논평을 냈다. “미국은 ‘아메리카 우선’이라는 현명한 정책으로 번영을 이뤄가고 있다.” 대영제국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세계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결과물이라는 분석과 함께.

린드버그가 주도한 AFC는 들불처럼 번져 너도나도 ‘전쟁은 노, 미국이 우선’을 외쳐댔다. 히틀러와도 거래를 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린드버그는 유대계 큰손들이 장악한 언론이 전쟁을 부추겨 미국을 위협에 빠트리려 한다며 미디어와 대립각을 세웠다. 트럼프가 왜 언론을 지구에서 가장 정직하지 못한 집단으로 매도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트럼프에게 린드버그는 스승이나 다름없으니.

일본의 진주만 폭격 나흘뒤 AFC는 해체됐으나 이들이 주장했던 ‘미국 우선’ 주의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다시 스포트

라이트를 받게 됐다. ‘미국 우선’이 처음엔 낯설고 때론 황당하게 느껴지겠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처럼 린드버그, 워싱턴에까지 맞닿아 있는 걸 알게 된다. ‘트럼프 신드롬’이 한낱 개인의 일탈행위나 레토릭(정치적 수사)으로 읽히지 않는 이유다.

어쨌거나 앞으로 4년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할 것 같다. ‘우리도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이익에 판지를 걸면 절대 참지 않겠다’는 엄포도 곁들여서.

그나저나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돌아서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미국이 떠난 공백을 메운다며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군국주의가 스멀대지나 않을까.

그리 되면 여지껏 미국이 피 흘리며 지켜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 곧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을 텐데. 알링턴 국립묘지의 훈령들이 분통을 터트릴지 모르겠다. 내 목숨 돌려달라고.

(문리대 66)



1919년 3.1운동(왼쪽 사진)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한국의 독립운동이었지만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3.1운동 소식은 중국에 빠르게 전해졌고 특히 중국의 학생과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같은해 5월4일 시작된 중국의 5.4운동(오른쪽 사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하고 1918년 여름 10만명의 노동자를 전선에 보냈다. 많은 중국인이 포탄이나 병으로 죽었고 중국인이 탄 선박은 독일 잠수함에 의해 지중해에서 침몰해 500명이 익사했다. 비록 전투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으나 윌슨이 산둥반도를 다시 중국에 돌려주리라고 믿은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더구나 산둥반도는 공자와 맹자가 탄생한 고장이요 중국인에게는 중국 문화의 성지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 산둥반도를 차지하려고 수작을 부렸다. 일본은 국제연맹규약에 인종차별 금지 조항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애란 문제 때문에 영국은 난처해졌고 백호주의를 내세우는 호주는 이

규약을 채택한다면 자기들은 나가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윌슨도 캘리포니아의 반일감정을 고려해 자기가 외친 고상한 원칙에 부합되는 일본의 요구를 반대해야만 하는 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 인종차별 금지 조항을 포기하는 대가로 일본은 산둥반도를 요구했다. 보좌관들이 일치해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윌슨은 일본의 요구에 굴복했다. 중국인의 민족자결은 희생하더라도 국제연맹은 살려야 된다는게 그의 생각이였다.

중국의 지식인들 특히 북경대학생들의 실망은 너무나 컸다. 그들은 한국인의 3.1운동을 본받아 5월 4일 거리에 나섰다. 이것이 중국의 5.4 운동이다. 여기

에는 모택동도 끼여 있었다. 그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이때다. 모택동도 중국 내전에서 자기가 장개석을 이기리라고는 생각치 못했었다. 모택동이 이기게 된 것은 윌슨의 덕이다. 윌슨이 산둥반도를 일본에 넘기지 않았더라면 5.4 운동은 없었을 것이고 5.4 운동이 없었다면 모택동은 일개 반군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중국은 2차 대전후 장개석의 중국이 되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6.25도 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고 하지만 만일 윌슨이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윌슨이 자기가 주장한 민족자결권까지 버리고 만든 국제연맹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의회가 인준을 거부해버렸고 일본은 만주사변을 조사하겠다고 국제연맹이 나서자 탈퇴해 버려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고 말았다. 클레망소의 예측이 적중했다. 미숙한 아마추어 정치가인 윌슨으로 인해 세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다.

우리 3.1운동을 본받아 중국에서 일어난 5.4 운동이 우리를 이런 고난에 빠뜨릴 줄을 누가 짐작했으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게 역사다.

인제 서울대 교수마을 탐방

“사다리 게임으로 각자 집 위치 정했어요”

교수산악회 출신 21명 조합 구성
2014년 첫 집 짓고 17가구 조성

주민과 지식 나누고 산양 살리고
남은 몇 자리... 함께할 동문 환영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서울대 교수마을은 단순한 전원주택 마을이 아니다. 자연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곳은 서울대 산악회 교수들이 은퇴 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마을로, 단순히 삶을 즐기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과 공헌을 고민하는 공간이다. 2014년 첫 집이 완성되고 10여 년이 흘렀다. 여러 지역의 은퇴자 마을이 실패로 돌아가는 가운데 잘 운영되는 비결이 뭘지 궁금했다.

3월 5일 인제에 함박눈이 쌓인 날, 마을 입구에서 가까운 이종구(의학76-82 전 의대 교수·국립암센터 이사장) 촌장 집에서 조수현(의학67-73 의대 명예교수)·박재학(수의학77-82 수의대 명예교수) 동문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교수산악회에서 시작된 공동체

인제 서울대 교수마을은 1994년 설립된 서울대 교수산악회에서 시작했다. 산악회 회원들은 등산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의 우정을 다져왔다. 은퇴 후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공통된 꿈을 발견한 이들은 2009년부터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2012년 강원도 인제 북면 한계리에 마을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전원주택 관련 법에 따라 20명 이상이 모이면 세금 혜택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프라를 지원해준다는 점을 활용해 21명의 교수들이 조합을 결성해 땅을 공동으로 구매했다. 이들은 6600평의 땅 중 2000여 평을 21필지로 나누어 각자 100평 대지에 30평 규모의 집을 짓고, 나머지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연상태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지 구입 비용은 인당 8000여 만원. 건축은 각자의 사정대로 했다.

다만 담장과 축대는 만들지 않는 것, 집 짓기 전 양도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재미있는 것은 택지를 분배한 방식. 2대 촌장을 지낸 조수현 동문은 “호암교수회관에 모여 사다리를 탔다”고 했다.

“맨 아래 택지에서 맨 위 택지까지 약 800m 거리고, 상당한 높이 차가 있어요. 위치에 따라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모두 임의 분배 방식에 동의해 사다리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마을의 초대 촌장은 최명연 명예교수였으며, 조수현 2대 촌장 등을 거쳐 현재는 이종구 교수가 마을을 이끌고 있다. 2014년 조수현, 박재학 교수의 첫 집을 시작으로, 현재 17명의 교수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집을 짓고 입주해 있다. 나머지 4개 택지는 아직 집을 짓지 않



이종구 동문 집 거실에서 (왼쪽부터) 박재학 조수현 이종구 동문과 전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위에서부터) 교수마을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윤동천 동문의 집. 박재학 동문 집에 설치된 증류기. 4000만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마을 초입에 있는 이종구 동문의 집 전경

은 상태다. 조합을 결성해 집을 짓기까지 최명연 초대 촌장의 공로가 컸다. 과거 화성시에서 전원주택을 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건축 행정 절차들을 도맡아 하며 매끄럽게 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교수 마을 멤버는 이렇다. △조동성(경영67-71) 경영대 명예교수 △이순형(가정관리70-74) 생활대 명예교수, △오종환(미학72-76) 인문대 명예교수, △정성은(의학74-80) 의대 명예교수, △계승혁(수학75-79) 자연대 명예교수, △손병주(지구과학교육76-80) 자연대 명예교수, △이승환(농생물80-84) 농생대 교수, △조용환(교육75-79) 사대 명예교수, △이장희(치의학78-84) 치대 명예교수, △

정영목 미대 명예교수, △김용한(의학81-87) 의대 교수, △윤동천(회화81-85) 미대 명예교수, △이상선(치의학81-87) 치대 교수, △천정희 자연대 교수, △이일하(식물82-86) 자연대 교수. 염현영(컴퓨터공학84졸) 전 공대 교수는 지난해 작고했고, 초대 멤버였던 김영진(경영67-71) 경영대 명예교수는 미국으로 이민 갔다.

노년 및 치아 건강 강좌 인기
마을에 사는 교수들은 각자의 전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돕고,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문화 활동과 학술 토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마을 내에서는 농사, 텃밭 가꾸기, 전통주 만들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재학 동문은 양구의 쌀과 꾸지뽕나무를 활용해 전통주를 만들어 지역 산업에 기여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승환 동문은 농사를 지으며 곤충 등 지역 자연을 연구하고 있다. 이장희 동문은 치대 교수에서 농부로 변신했다.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이곳에 상주하면서 비닐하우스 두 동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다.

박재학 동문은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비교해 지역 전통주 문화가 너무 약하다”며 “지역 작물을 활용해 산업을 만들기에 전통주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 농경지도 구입하고 증류기도 구비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색소폰, 대금 등 다양한 취미 생활도 영위하는 박재학 동문의 집은 술과 음악이 늘 구비 돼 있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교수들은 단순히 은퇴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학문적 탐구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부터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교수들이 돌아가며 강

좌를 개설해 지역 주민들과 지식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2, 3월 산양들이 굶어 죽는 일이 다수 발생했을 때, 먹이를 공급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활동을 펼쳐 인제군이 산양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소복히 눈 쌓인 풍경 보며 힐링

“서울대 교수 2명의 의견을 일치를 보는 게 벼룩 10마리를 데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10여 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잡음 없이 10년간 잘 유지한 비결이 뭘까. 조수현 동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산을 함께 다녔다는 그 기본 베이스로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등산하면 리더 말을 절대 따라야 하는 엄격함이 있어요. 험산을 등산하다 보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전원주택의 단점으로 고립된 생활, 부족한 인프라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마을은 여럿이 함께 살고 있어 외로움의 문제는 작다. 전기, 수도, 도로 인프라도 잘 깔려있고, 차로 15분 거리에 대형마트와 극장, 수영장도 있다.

이종구 동문은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했다. “여기 있다 보면 오히려 시간 계획이 뽁뽁합니다. 농사를 짓는 게 자재 구입부터 일정이 있거든요. 며칠 손 놔버리면 그냥 망칩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자연과 함께 규칙적으로 사는 게 참 좋죠. 소복히 눈 쌓인 풍경 이런 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조수현 동문은 은퇴 후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빠르게 치유가 이뤄졌다고 했다. “아파트에 살면 밖에 나갈 때 뭐라도 걸치고 나가야 하고 행동에 제약을 받죠. 여기서는 모든 게 자유롭죠. 좋은 환경에서 매일 파스한 햇볕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텃밭 가꾸고, 음식도 자급해 먹으니 생활비도 적게 들죠. 편안하게 생활하다 보니 암도 빨리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이 동문은 “우리 마을에 관심이 있는 동문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자리가 몇 개 있어 뜻을 같이하는 동문은 함께 할 수 있다. **김남주 기자**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뉴욕 - 조상근 (법대 69)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골드이사 (\$10,000이상)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김보연 (간호대 63)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중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동영 (사대 60)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오인석 (법대 58)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시카고 - 조규승 (문리 72)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뉴욕 - 김현중 (공대 63)
북가주 - 강재호 (상대 57)
북가주 - 박순희 (의대 60)
북가주 - 남광순 (음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워싱턴DC - 배성호 (의대 65)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익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웅 (사대 73)
곽용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자성 (의대 79)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나용화 (생과대 79)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경자 (사대 60)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균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故김중률 (사대 51)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오용호 (의대 66)
윤인숙 (간호대 63)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형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조대일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故방은호 (약대 43)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홍기 (문리대 61)
박평일 (농대 69)
서취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박종성 (법대 53)
박진영 (공대 66)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황동하 (의대 65)

시카고

故이윤모 (농대 57)
강영국 (수의대 67)
소진문 (치대 58)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202,303
(12/31/24 까지)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유현주 (문리 65)
진성호 (공대 64)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틀랜드

故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김병연 (공 68)	500
김성환 (의 65)	300
노진걸 (사 70)	2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5,000
박한영 (자)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홍 (문 53)	1,000
손기용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법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이재진 (문 55)	200
임낙균 (약 64)	21,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만의 (사 59)	200
황현상 (의 55)	100
H & Y Lee	1,000
뉴욕	
곽선석 (공 61)	400
신응남 (농 70)	700
김광현 (미 57)	200
김보영 (간 69)	50
김해암 (의 52)	100
리준무 (음 65)	4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형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형 (의 58)	2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2,000
주창춘 (의)	400
박종승 (의 56)	200
네바다	
김상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500

워싱턴DC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4,000
백순(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시카고	
강영국 (수 67)	200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20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황효숙 (사 65)	2,000
조지아	
이종석 (의 54)	200
성성모 (사 67)	200
최정진 (의 63)	500
한성수 (의 54)	200
커네티컷	
최창승 (의 58)	200
테네시	
김경석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400
필라델피아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400
오석일 (의 64)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2,0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 81)	480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이종묘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720
하기환 (공 66)	480
김경무 (공 69)	240
김원탁 (공 65)	480
김일영 (의 65)	480
김자성 (의 79)	240
서동영 (사 60)	240
신동국 (수 76)	480
최무식 (약 66)	240
아주투어	500
이경희 (인 83)	48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종묘 (간 69)	240
이태영 (법 60)	480
최우식 (약 66)	240
뉴욕	
김승호 (공 71)	240
김치갑 (의 73)	480
박종호 (의 79)	240
신응남 (농 70)	48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48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4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 53)	300
홍성선 (약 72)	100
이건일 (의 62)	1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400
시카고	
김현주 (문 61)	1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강길중 (약 69)	500
테네시	
권준희 (가 87)	15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SNUAA Scholar Program

(본국)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김종섭 총동창회 회장 (상 65)	10,000
남가주	
노명호 (공 61)	10,000
미시간	
고광국 (공 54)/	200,000
고국화 (공 56)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시카고	
이용락 (공 48)	3,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김자성 (의 79)	1,5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22,000
박수경 (생 84)	5,1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3,000
하기환 (공 66)	2,500
홍훈정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이전구 (농 60)	3,000
인명록비	
뉴욕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워싱턴 DC	
권기현 (사 53)	300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5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20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5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3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나눔기금(Charity Fund)	
남가주	
주선희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100
신응남 (농 70)	300
펜실베니아	
신의석 (공 53)	5,0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관악연대 후원금	

지부분담금 (24-25년 2차회기)

미네소타	
문성인 (공 88)	550
미시간	
이광진 (공 81)	300
필라델피아	
심희진 (음 90)	1,000
워싱턴주	
이정관 (농 83)	800
휴스턴	
김정환 (공 80)	55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일 1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2024/7~2025/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2024/6월, 1년/1차) <input type="checkbox"/> \$240 (2024/7월~2025/6월, 1년/2차)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SNUAA Scholars Program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관악연대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모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t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120 Sylvan Ave #303,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중호 소아과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강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URI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Jennie Lee

Cell. **714.396.0624**

Tel. **714.562.0404**

Fax. **714.736.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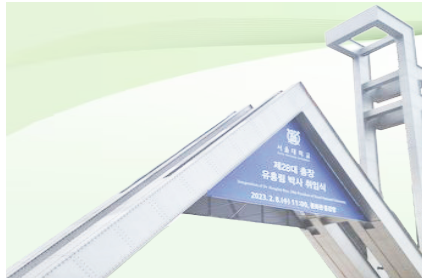
Jennielee@gmail.com

Jennielee.mytsr.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REALTOR BRE#00975064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이영일(문) 이채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호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지),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 나용화(생)/위원: 최경석(사), 박문수(공)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백옥자(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택택(공)

위원: 고 김영구(공),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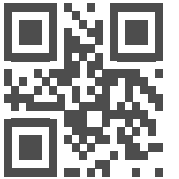
나눔위원회

위원장: 이성숙(가)

위원: 정태광(공), 유미영(음)

감사: 박평일(농)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5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채규황**(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차기 회장 **양수진**(간호대 80) T: (714)335-2148
sujinyang2011@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박상호(치대 80) T: (516)776-0449
nomacast@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998-4150
jklee234@yahoo.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룩키타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jok@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송태영(자연대 84)
T: (778)866-8312
chris.van.bc@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차기 회장 **이동균**(공대 75) T: (847)644-4807
dlee1917@yahoo.com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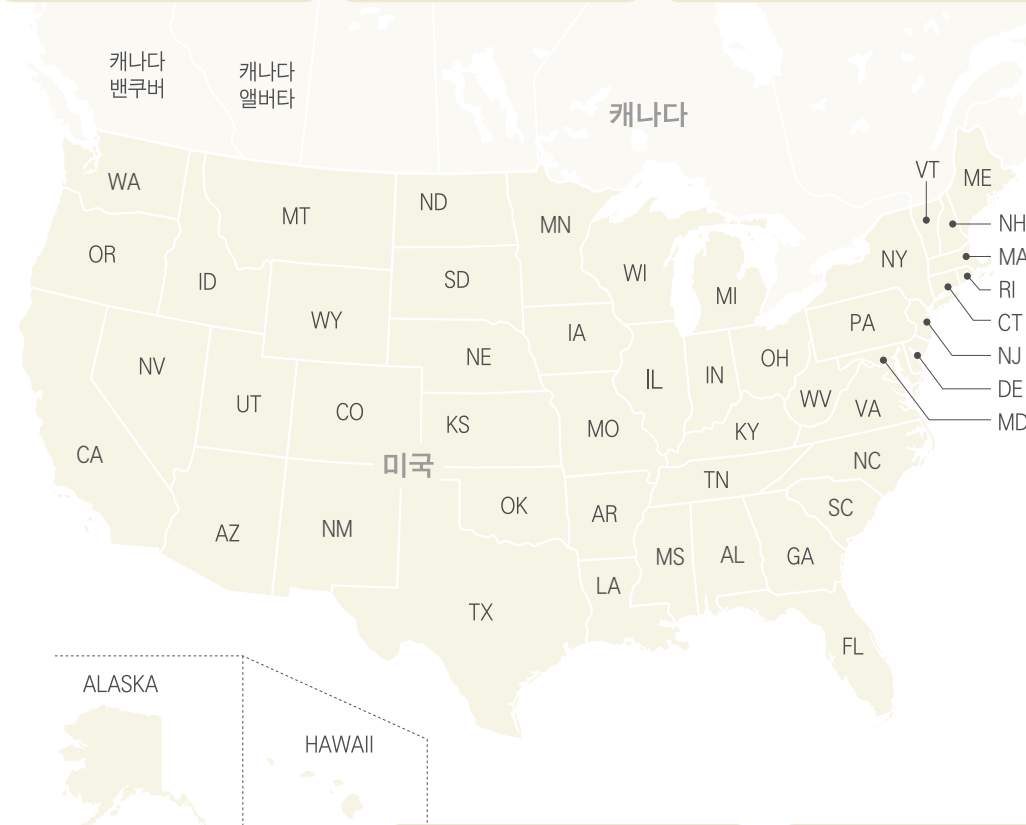
남옥현(경영대 84)
T: (703)898-6429
minamusa@yahoo.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 ✓ Physical Therapy
- ✓ Spinal Injections
- ✓ Acupuncture
- ✓ And More...

Chee Gap Kim, M.D.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의대 73)

김치갑 통증병원 201-541-1111 | KIMPAIN.COM
535 GRAND AVE, 2ND FL. ENGLEWOOD, NJ 07631

Beverly Cardiology Group
베벌리 순환기내과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T: 323-662-1175 김일영 (의대 65)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Byung Joon Lee
이병준 (상대 55)

